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4. 27.(월) 12:00	 <b>통계청</b> <b>여성가족부</b>
	배포일시	2020. 4. 27.(월) 08:30	
	담당부서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청소년정책과	
	담당자	통 계 청 과 장: 강유경 (042-481-2233) 사 무 관: 박병제 (042-481-2235) 여성가족부 과 장: 최은주 (02-2100-6231) 전문위원: 전재은 (02-2100-6237)	

## 2020 청소년 통계

## 일 러 두 기

□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통계청에서는 2002년부터 청소년의 모습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청소년 통계」를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 2012년부터는 청소년 정책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통계」는 국가승인통계를 중심으로 한 각종 통계에서 청소년 관련 내용을 발췌하거나 재분류·가공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청소년의 모습을 조명하였습니다.

□ 청소년 대상 연령은 인용한 각 통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24세를 기본으로 하되, 출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상 연령에 차이가 있습니다.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사망원인통계」: 9~24세
- 통계청, 「사회조사」: 13~24세
-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초·중·고등학생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5~29세
  - 직업별 취업자 통계: 20~29세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20~29세
- 교육부, 「교육기본통계조사」: 초·중·고등학생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중·고등학생
- OECD, 「PISA(국제 학업성취도평가)」: 만 15세 중·고등학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10대, 20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 10대
- 대검찰청, 「범죄분석」: '17년까지 10~18세, '18년 14~18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초(4~6학년)·중·고등학생
  - 아르바이트, 흡연 및 음주: 중·고등학생

□ 보도자료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한 것으로 각 항목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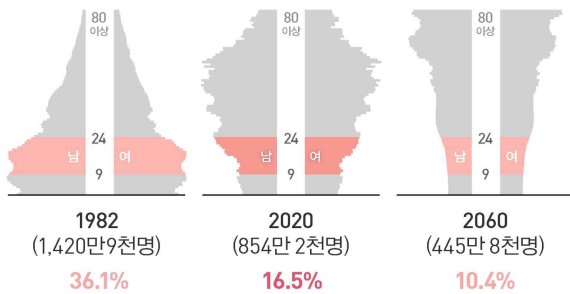
# 2020 청소년 통계



통계청 여성가족부

## 인구

청소년(9~24세) 추계인구



##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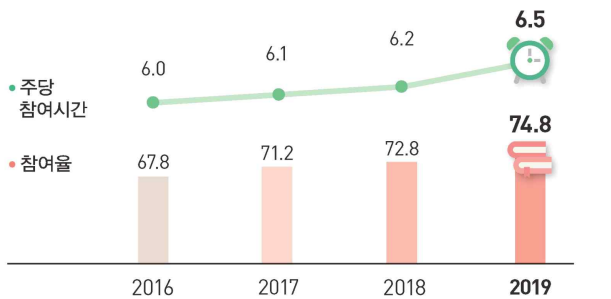
수면시간·규칙적운동(2019)



\*규칙적운동: 건강관리를 위해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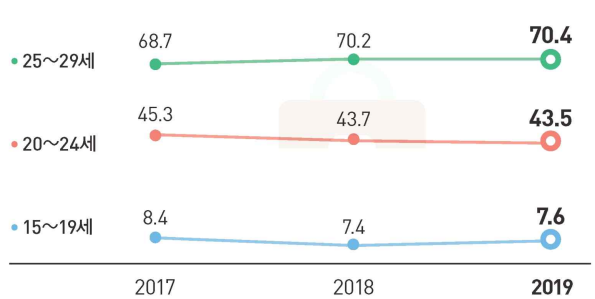
## 학습·교육

사교육



## 경제활동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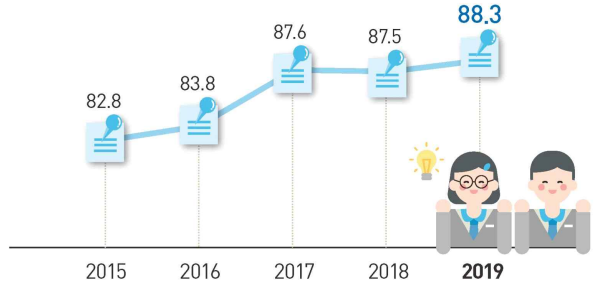
## 여가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2019, 복수응답)



## 사회참여·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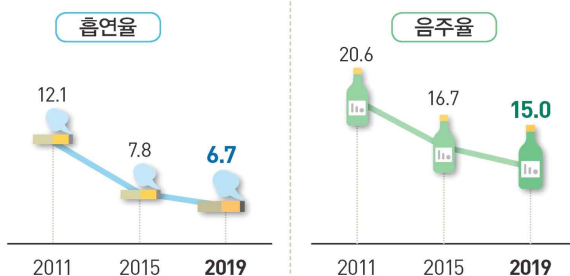
사회참여 의식



\*청소년도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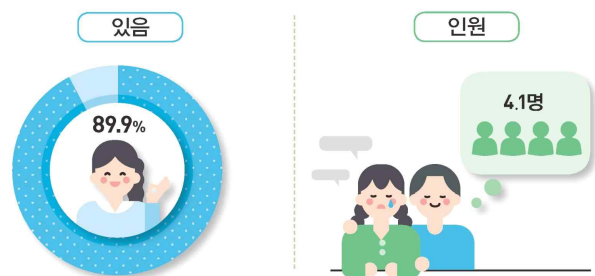
## 안전·행동

흡연율·음주율



## 관계

사회적 관계망(2019)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목 차

□ 2020 청소년 통계 [요약] .....	1
□ 2020 청소년 통계 .....	5
I. 인구 .....	6
1. 인구추이 .....	6
2. 학령인구 .....	7
3. 다문화학생 .....	8
II. 건강 .....	9
4. 주관적 건강평가 .....	9
5. 수면시간 및 규칙적 운동 .....	10
6. 스트레스 및 우울감 .....	11
7. 사망 .....	12
III. 학습·교육 .....	13
8. 학교생활 만족도 .....	13
9. 학습시간 .....	14
10. 사교육 .....	15
11. 학업성취도 .....	16
12. 진학률 및 취업률 .....	17
13. 학업중단율 .....	18
IV. 경제활동 .....	19
14. 고용동향 .....	19
15. 직업별 취업자 .....	20
16. 임금수준 .....	21

17. 직업 선택 요인 .....	22
18. 선호하는 직장 .....	23
19. 아르바이트 .....	24
<b>V. 여가 .....</b>	<b>25</b>
20. 여가활동 .....	25
21. 인터넷 이용 .....	27
22. 문화 활동 .....	29
<b>VI. 사회참여·의식 .....</b>	<b>30</b>
23. 봉사활동 .....	30
24. 사회에 대한 신뢰도 .....	31
25. 사회참여 의식 .....	32
26. 양성평등 의식 .....	33
27. 인권 의식 .....	34
<b>VII. 안전·행동 .....</b>	<b>36</b>
28. 스마트폰 과의존 .....	36
29. 흡연 및 음주 .....	37
30. 가출 경험 및 이유 .....	38
31. 소년범죄 .....	39
<b>VIII. 관계 .....</b>	<b>40</b>
32. 인간관계 만족도 .....	40
33. 사회적 관계망 .....	41
34. 고민 상담 .....	42
<b>IX. 통계표 .....</b>	<b>4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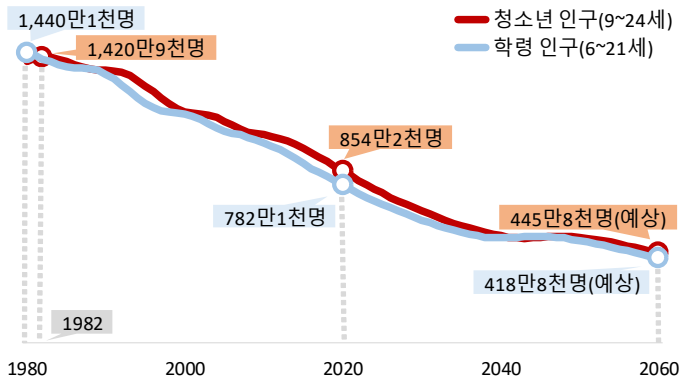
## 2020 청소년 통계 (요약)

### ◆ 인구

2020년 청소년 인구는 854만 2천 명으로 총인구의 16.5%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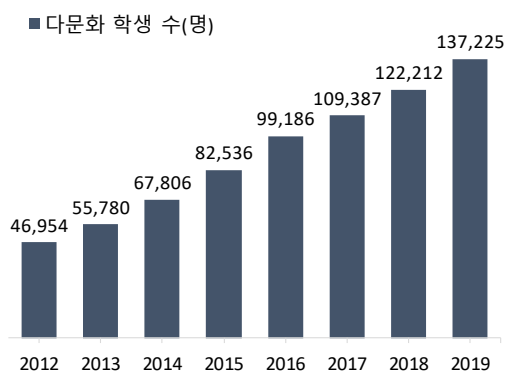
- '20년 청소년 인구(9~24세)는 854만 2천 명으로 총인구의 16.5%를 차지하며, '60년에는 청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년 학령인구(6~21세)는 782만 1천 명으로 총인구의 15.1%를 차지하며, 총인구 중 학령인구 비중은 계속 감소하여 '60년에는 10% 아래로 낮아질 전망임
- '19년 다문화 학생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13만 7천 명으로,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다문화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인구추이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다문화 학생 >



한국교육개발원·교육부, 「교육기본통계조사」

### ◆ 건강

2019년 초·중·고등학생의 평일 평균 수면시간은 7.3시간임

- '19년 초(4~6)·중·고등학생은 평일에 평균 7.3시간 잠을 잠
  - 초등학생은 8.7시간, 중학생은 7.4시간, 고등학생은 6.0시간 잠을 잠
- '19년 중·고등학생 10명 중 4명(39.9%)은 평상시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며, 10명 중 3명(28.2%)은 최근 12개월 내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19년 초(4~6)·중·고등학생 10명 중 9명(86.9%)은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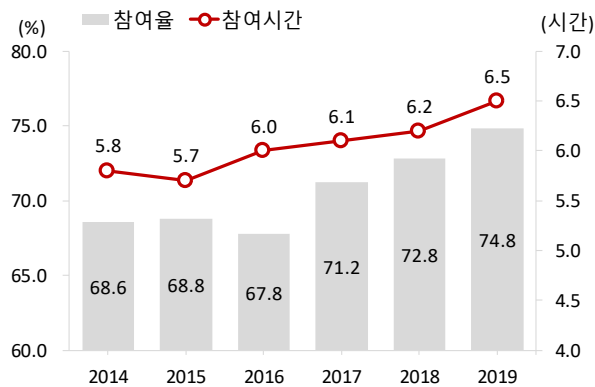
## 학습 · 교육

### 2019년 초·중·고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 대비 2.0%p 증가한 74.8%임

- '19년 초등학생 10명 중 8명(83.5%), 중학생 10명 중 7명(71.4%), 고등학생 10명 중 6명(61.0%)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16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 사교육 참여시간은 주당 평균 6.5시간으로 '15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19년 초(4~6)·중·고등학생 10명 중 8명(76.5%)은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느낌
- PISA \* 2018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읽기 2~7위, 수학 1~4위, 과학 3~5위로 세계 상위 수준을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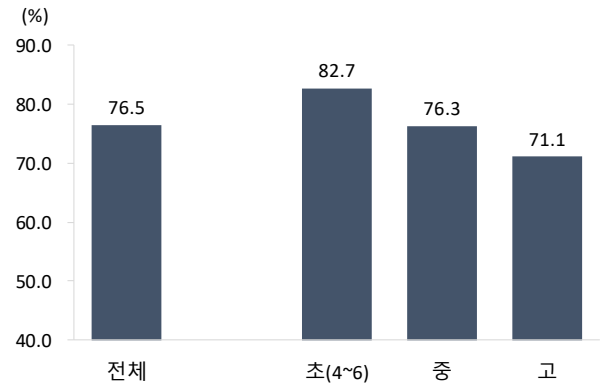
\*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OECD 주관 국제 학업성취도평가

#### < 사교육 >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 < 학교생활 만족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경제활동

### 2019년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 대비 0.8%p 증가한 43.5%임

- '19년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5%이며, 실업률은 전년 대비 0.6%p 감소한 8.9%임
- 연령대별 고용률은 15~19세 7.6%, 20~24세 43.5%, 25~29세 70.4%임
- '18년 20~24세 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199만 8천 원, 25~29세 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246만 6천 원임
- '19년 청소년(13~24세)이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수입(32.8%), 적성·흥미(28.1%), 안정성(21.0%) 순임
- '19년 중학생 100명 중 3명(2.7%), 고등학생 100명 중 14명(13.6%)은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16년 이후 계속 감소 중임

## ◆ 여가

### 2019년 청소년이 향후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관광활동(58.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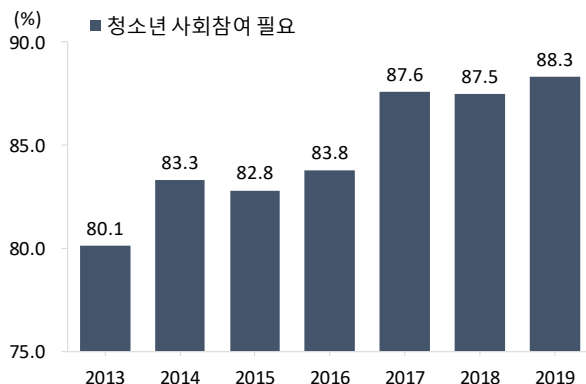
- '19년 초(4~6)·중·고등학생의 평일 여가시간은 1~2시간(27.2%), 2~3시간(22.0%), 1시간 미만(16.2%), 3~4시간(14.2%) 순임
- '19년 청소년(13~24세)은 여가활동으로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을 가장 많이 함
- '19년 청소년(13~24세)이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관광활동(58.5%), 취미·자기개발 활동(48.8%), 문화예술관람(48.5%),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30.2%) 순임
- '19년 청소년(13~24세) 10명 중 9명(86.2%)은 최근 1년 내 문화예술 및 스포츠를 관람함

## ◆ 사회참여 · 의식

### 2019년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9명은 청소년도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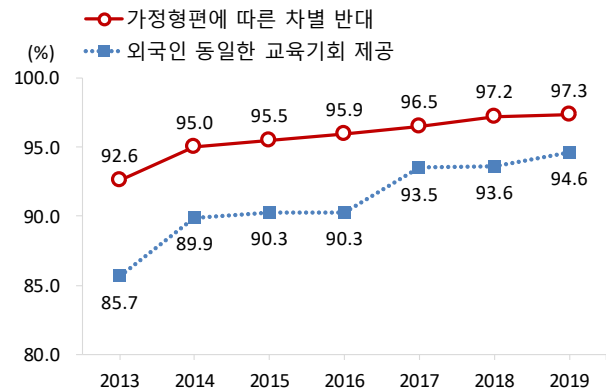
- '19년 초(4~6)·중·고등학생의 88.3%는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19년 초(4~6)·중·고등학생의 96.4%는 남자와 여자가 모든 편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
- '19년 초(4~6)·중·고등학생의 97.3%는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에 반대함
- '19년 초(4~6)·중·고등학생의 94.6%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동일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

< 사회참여 의식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차별 의식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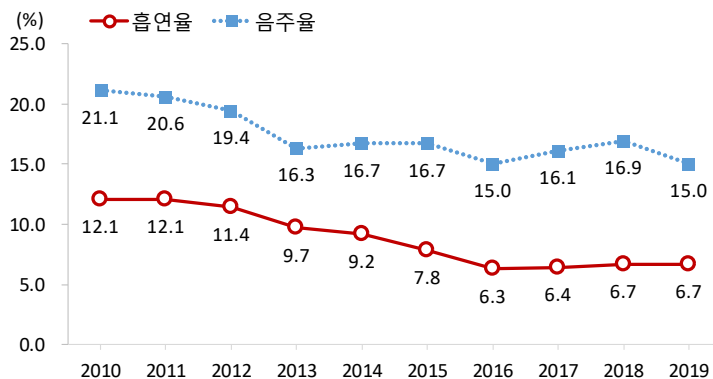


## 안전 · 행동

### 2019년 중·고등학생의 최근 30일 내 흡연율은 6.7%, 음주율은 15.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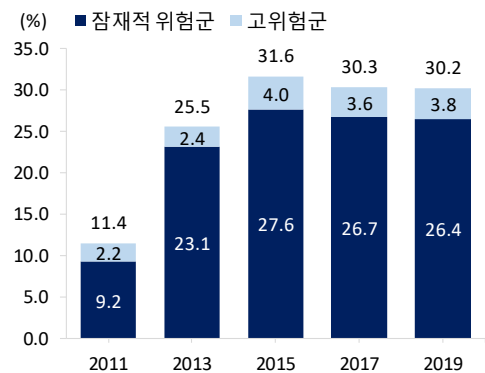
- '19년 중·고등학생 100명 중 7명(6.7%)은 최근 30일 내 흡연한 적이 있으며, 100명 중 15명(15.0%)은 최근 30일 내 음주한 적이 있음
- '19년 10대 청소년 10명 중 3명(30.2%)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며, 중학생이 과의존 위험에 가장 취약함
- '19년 초(4~6)·중·고등학생의 최근 1년 내 가출 경험률은 3.5%로 전년 대비 0.3%p 감소했으며, 주된 가출 이유는 부모님과의 문제(61.7%)임
- '19년 소년범죄자(14~18세)는 6만 6천여 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3.8%를 차지하며, 범죄유형으로는 재산범죄(40.1%)가 가장 많이 나타남

#### < 흡연 및 음주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 스마트폰 과의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



## 관계

### 2019년 청소년 10명 중 9명은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도움받을 이야기 상대가 있음

- '19년 청소년(13~24세) 10명 중 9명(89.9%)은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음
- '19년 청소년(13~24세) 3명 중 2명(64.9%)은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만족하고 있으며, 3.8%는 인간관계에 만족하지 못함
- '19년 청소년 상담(1388) 건수는 90만 2천 건으로 '1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고민 상담유형은 정보제공(18.2%), 정신건강(18.1%), 대인관계(16.6%) 순임

---

# 2020 청소년 통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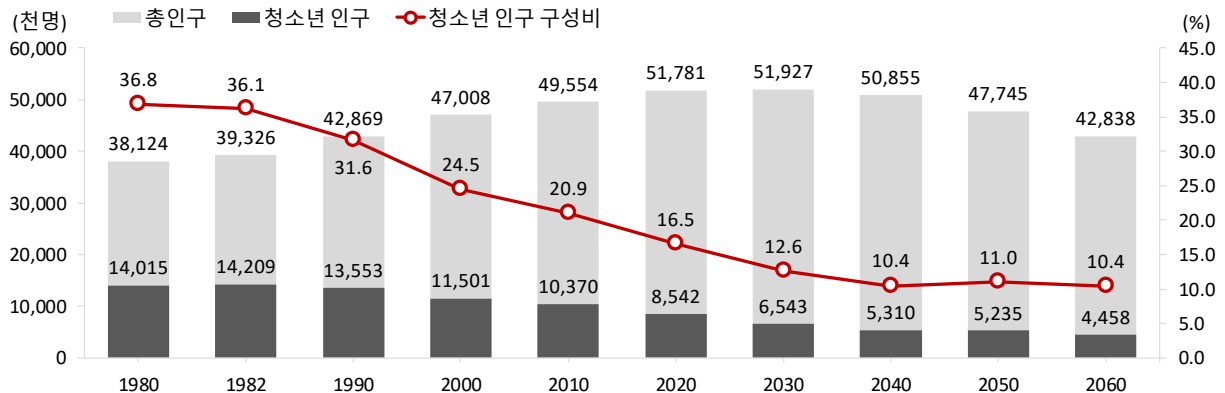
# I. 인구

## 1. 인구 추이

2020년 청소년(9~24세) 인구는 854만 2천 명으로 총인구의 16.5%를 차지함

- 2020년 청소년 인구는 총인구의 16.5%인 854만 2천 명으로 1982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음
  - 1982년 1,420만 9천 명이었던 청소년 인구는 약 40년 후인 2020년에 6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향후 40년 후인 206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청소년 인구의 남녀성비는 남자 52.1%, 여자 47.9%로 나타남

< 청소년(9~24세) 인구 및 구성비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3.

< 청소년(9~24세) 인구 추이 >

(단위 : 천명, %)

	총인구	청소년 인구 (9~24세) <sup>1)</sup>	구성비	남자	구성비 <sup>2)</sup>	여자	구성비 <sup>2)</sup>
1980	38,124	14,015	36.8	7,216	51.5	6,799	48.5
1982	39,326	14,209	36.1	7,322	51.5	6,887	48.5
1990	42,869	13,553	31.6	6,991	51.6	6,563	48.4
2000	47,008	11,501	24.5	5,987	52.1	5,514	47.9
2010	49,554	10,370	20.9	5,468	52.7	4,902	47.3
2020	51,781	8,542	16.5	4,448	52.1	4,094	47.9
2030	51,927	6,543	12.6	3,362	51.4	3,181	48.6
2040	50,855	5,310	10.4	2,722	51.3	2,588	48.7
2050	47,745	5,235	11.0	2,685	51.3	2,550	48.7
2060	42,838	4,458	10.4	2,286	51.3	2,172	48.7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3.

주 : 1) 청소년 기본법 기준에 따른 청소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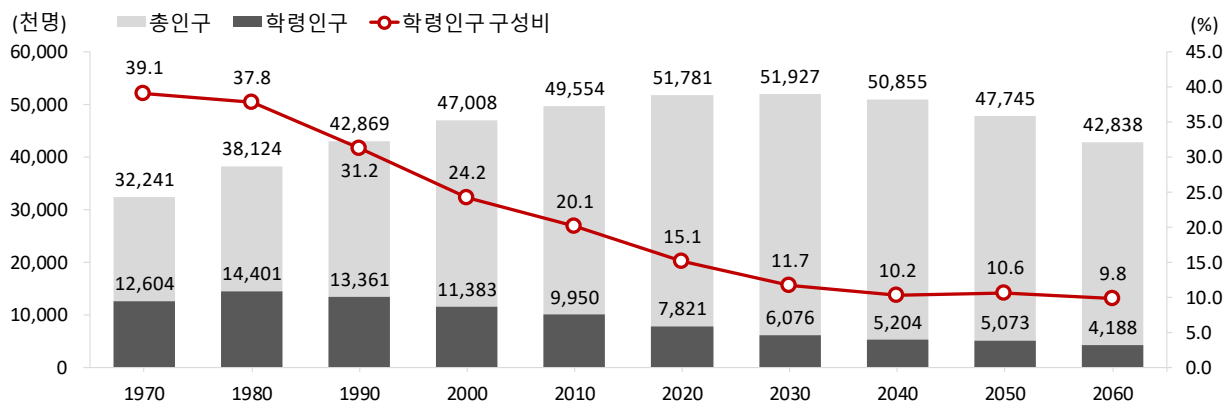
2) 청소년 인구에 대한 각각의 구성비

## 2. 학령인구

2020년 학령인구(6~21세)는 전년 대비 2.8% 감소한 782만 1천 명임

- 2020년 학령인구는 782만 1천 명으로 총인구의 15.1%를 차지함
  - 총인구 중 학령인구 비중은 계속 감소하여 2060년에는 10% 아래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학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6~11세) 5.2%, 중학교(12~14세) 2.6%, 고등학교(15~17세) 2.7%, 대학교(18~21세) 4.6%로 나타남

< 학령인구(6~21세) 및 구성비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3.

< 학령인구(6~21세) 추이 >

(단위 : 천명, %)

	총인구	학령인구(6~21세)		초등학교(6~11세)		중학교(12~14세)		고등학교(15~17세)		대학교(18~21세)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1970	32,241	12,604	39.1	5,711	17.7	2,574	8.0	2,101	6.5	2,218	6.9
1980	38,124	14,401	37.8	5,499	14.4	2,599	6.8	2,671	7.0	3,632	9.5
1990	42,869	13,361	31.2	4,786	11.2	2,317	5.4	2,595	6.1	3,663	8.5
2000	47,008	11,383	24.2	4,073	8.7	1,869	4.0	2,166	4.6	3,275	7.0
2010	49,554	9,950	20.1	3,280	6.6	1,985	4.0	2,084	4.2	2,601	5.2
2019	51,709	8,047	15.6	2,765	5.3	1,318	2.5	1,454	2.8	2,511	4.9
2020	51,781	7,821	15.1	2,717	5.2	1,358	2.6	1,382	2.7	2,364	4.6
2030	51,927	6,076	11.7	1,797	3.5	1,143	2.2	1,321	2.5	1,815	3.5
2040	50,855	5,204	10.2	2,085	4.1	1,017	2.0	916	1.8	1,186	2.3
2050	47,745	5,073	10.6	1,733	3.6	941	2.0	1,002	2.1	1,396	2.9
2060	42,838	4,188	9.8	1,398	3.3	793	1.9	832	1.9	1,164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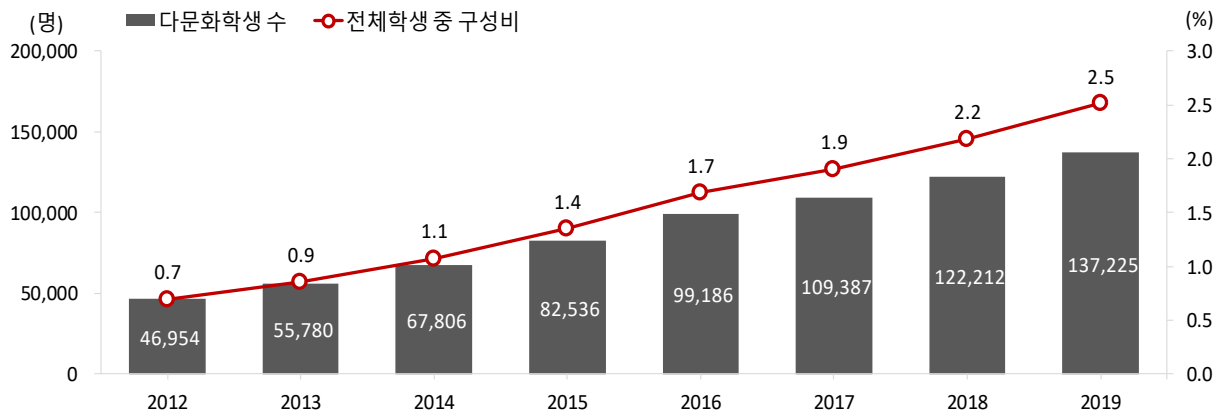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3.

### 3. 다문화 학생

2019년 초·중·고 다문화 학생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13만 7천 명임

- '19년 다문화 학생은 13만 7천 명으로 전체 학생의 2.5%를 차지함
  -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다문화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12년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함
- '19년 다문화 학생 중 75.7%가 초등학생이며, 중학생 15.8%, 고등학생 8.2% 등으로 나타남

< 다문화 학생 수 및 비중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교육부, 「교육기본통계조사」

< 다문화 학생 현황 >

(단위 : 명, %)

	전체 학생 <sup>1)</sup> (천명)	다문화 학생수 <sup>2)</sup>	구성비 <sup>3)</sup>	전년 대비	초등학교	구성비 <sup>4)</sup>	중학교	구성비 <sup>4)</sup>	고등학교	구성비 <sup>4)</sup>	각종학교	구성비 <sup>4)</sup>
2012	6,730	46,954	0.7	-	33,740	71.9	9,627	20.5	3,409	7.3	178	0.4
2013	6,489	55,780	0.9	18.8	39,360	70.6	11,280	20.2	4,858	8.7	282	0.5
2014	6,294	67,806	1.1	21.6	48,225	71.1	12,506	18.4	6,734	9.9	341	0.5
2015	6,097	82,536	1.4	21.7	60,162	72.9	13,827	16.8	8,146	9.9	401	0.5
2016	5,891	99,186	1.7	20.2	73,972	74.6	15,080	15.2	9,816	9.9	318	0.3
2017	5,733	109,387	1.9	10.3	82,733	75.6	15,945	14.6	10,334	9.4	375	0.3
2018	5,593	122,212	2.2	11.7	93,027	76.1	18,068	14.8	10,688	8.7	429	0.4
2019	5,453	137,225	2.5	12.3	103,881	75.7	21,693	15.8	11,234	8.2	417	0.3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교육부, 「교육기본통계조사」

- 주 :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각종학교 재적 학생수  
 2) 국제결혼가정 학생(국내출생+중도입국)+외국인가정 학생  
 3) 다문화학생 수/전체 학생 수×100  
 4) 다문화학생 중 구성비

## II.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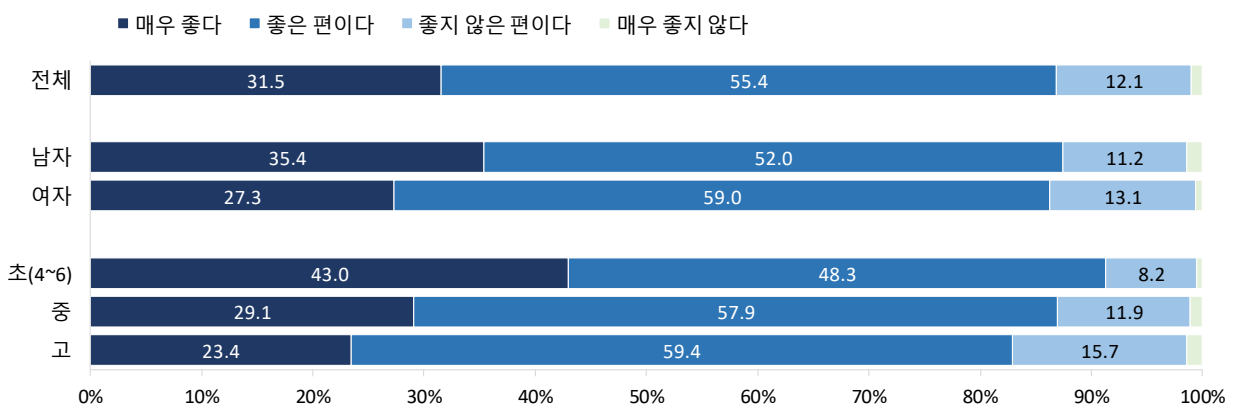
### 4. 주관적 건강평가

2019년 초(4~6)·중·고등학생 10명 중 9명은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평가함

□ '19년 초(4~6)·중·고등학생 10명 중 9명(86.9%)은 자신의 신체적 건강이 좋다고 생각함

-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평가한 비중은 남자(87.4%)가 여자(86.3%)보다 높음
-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감소함  
\* (초등학교) 91.3% → (중학교) 87.0% → (고등학교) 82.8%

#### < 주관적 건강평가 항목별 응답비중(2019년)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 주관적 건강평가 >

(단위 : %)

	계	좋다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좋지 않다	좋지 않은 편이다	매우 좋지 않다
2014	100.0	84.5	20.8	63.7	15.4	14.2	1.2
2015	100.0	85.7	23.4	62.3	14.2	13.2	1.0
2016	100.0	83.5	22.9	60.6	16.5	15.2	1.3
2017	100.0	87.7	32.3	55.4	12.3	11.3	1.0
2018	100.0	87.1	31.3	55.8	12.9	11.9	1.0
2019	100.0	86.9	31.5	55.4	13.1	12.1	1.0
남자	100.0	87.4	35.4	52.0	12.6	11.2	1.4
여자	100.0	86.3	27.3	59.0	13.7	13.1	0.6
초(4~6)	100.0	91.3	43.0	48.3	8.7	8.2	0.5
중	100.0	87.0	29.1	57.9	13.0	11.9	1.1
고	100.0	82.8	23.4	59.4	17.1	15.7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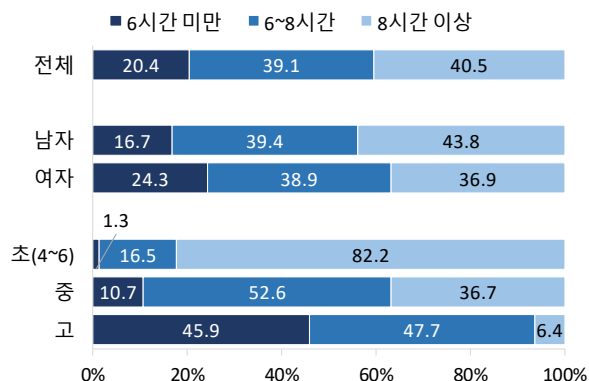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초(4~6)·중·고등학생 대상

## 5. 수면시간 및 규칙적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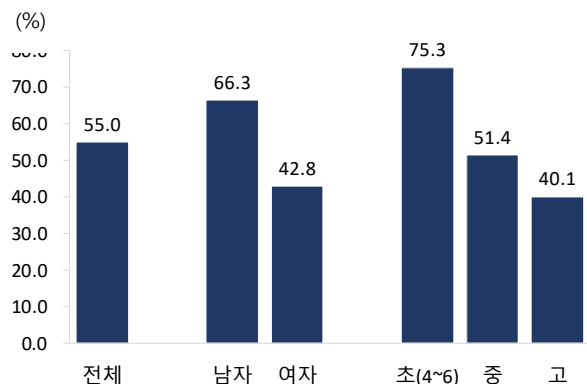
2019년 초(4~6)·중·고등학생은 평일에 평균 7.3시간 잠을 자며, 초(4~6)·중·고등학생 10명 중 6명은 건강관리를 위해 주 1회 이상 운동함

- '19년 초·중·고등학생은 평일에 평균 7.3시간 잠을 자며,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8.7시간, 중학생은 7.4시간, 고등학생은 6.0시간 잠을 잠
  -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잠을 자고 중학생은 10명 중 9명이 6시간 이상 잠을 자는 반면,
  - 고등학생은 10명 중 약 5명(45.9%)이 6시간 미만 잠을 잠
- '19년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약 6명이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함
  -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비중이 낮아짐
    - \* (초등학교) 75.3% → (중학교) 51.4% → (고등학교) 40.1%
-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잠을 더 많이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함

< 수면시간(2019년) >



< 규칙적 운동(2019년)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수면시간 및 규칙적 운동 >

(단위 : 시간, %)

	계	평균 수면시간 (시간)	평균 수면시간(%)			규칙적 운동
			6시간 미만	6~8시간	8시간 이상	
2018	100.0	7.3	19.7	41.7	38.7	54.1
2019	100.0	7.3	20.4	39.1	40.5	55.0
남자	100.0	7.5	16.7	39.4	43.8	66.3
여자	100.0	7.2	24.3	38.9	36.9	42.8
초(4~6)	100.0	8.7	1.3	16.5	82.2	75.3
중	100.0	7.4	10.7	52.6	36.7	51.4
고	100.0	6.0	45.9	47.7	6.4	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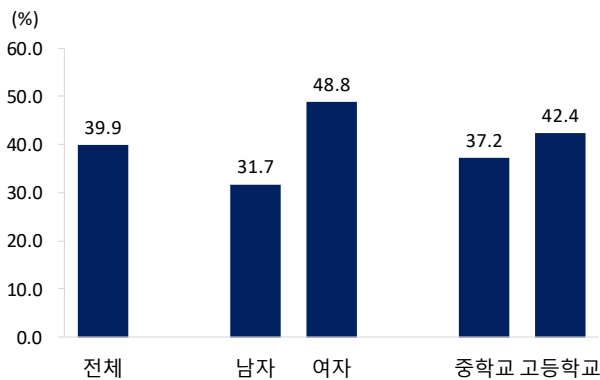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초(4~6)·중·고등학생 대상

## 6. 스트레스 및 우울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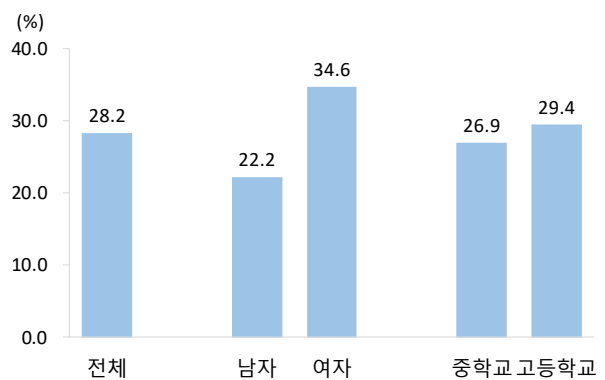
2019년 중·고등학생 10명 중 4명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며,  
10명 중 3명은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함

- '19년 중·고등학생 10명 중 4명(39.9%)은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음
  - 스트레스 인지율은 고등학생(42.4%)이 중학생(37.2%)보다, 여자(48.8%)가 남자(31.7%)보다 높으며, 학교급보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남
- '19년 중·고등학생 10명 중 3명(28.2%)은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함
  - 우울감 경험률도 고등학생(29.4%)이 중학생(26.9%)보다, 여자(34.6%)가 남자(22.2%)보다 높으며, 학교급보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스트레스 인지율(2019년) >



< 우울감 경험률(2019년) >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 경험률 >

(단위 : %)

	스트레스 인지율 <sup>1)</sup>	남자	여자	중 학교	고등학교	우울감 경험률 <sup>2)</sup>	남자	여자	중 학교	고등학교
2010	43.8	37.7	50.7	40.8	46.9	37.4	32.7	42.6	34.4	40.3
2011	42.0	35.8	49.0	39.0	45.0	32.8	28.0	38.2	30.0	35.5
2012	41.9	34.8	49.6	38.9	44.7	30.5	25.5	36.0	28.2	32.6
2013	41.4	34.3	49.3	39.1	43.7	30.9	25.2	37.1	29.0	32.6
2014	37.0	30.8	43.7	33.4	40.3	26.7	22.2	31.6	24.4	28.8
2015	35.4	29.6	41.7	31.6	38.7	23.6	19.7	27.8	21.2	25.6
2016	37.4	30.5	44.9	33.6	40.5	25.5	20.9	30.5	22.7	27.7
2017	37.2	30.4	44.6	34.1	39.8	25.1	20.3	30.3	23.5	26.4
2018	40.4	32.0	49.5	37.0	43.4	27.1	21.1	33.6	25.2	28.7
2019	39.9	31.7	48.8	37.2	42.4	28.2	22.2	34.6	26.9	29.4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중·고등학생 대상

주 : 1)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

2)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 7. 사망

2018년 청소년(9~24세)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2천여 명이며,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 안전사고, 악성신생물(암)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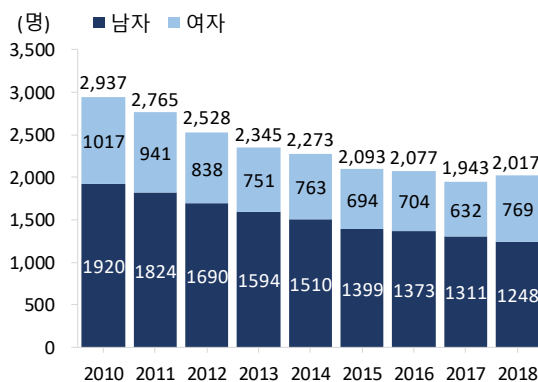
□ '18년 청소년 사망자 수는 2,017명으로, '10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18년에는 전년 대비 3.8% 증가함

○ 청소년 사망자 10명 중 6명(61.9%)이 남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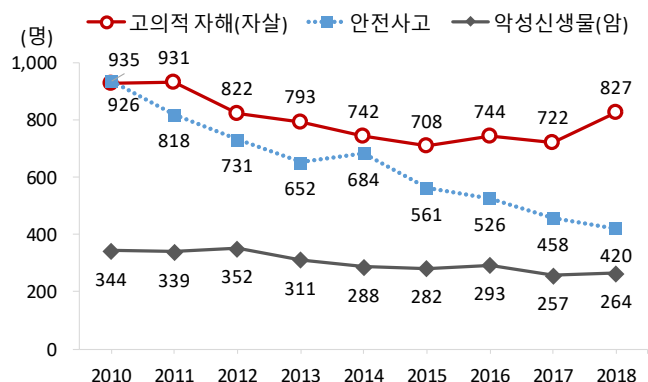
□ 청소년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 안전사고, 악성신생물(암) 순임

○ 안전사고가 '10년에는 청소년 사망원인 1위였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18년에는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함

< 청소년(9~24세) 사망자 수 >



< 청소년(9~24세) 사망원인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및 「사망원인통계」

< 청소년(9~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원인 >

(단위 : 명,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명)

	사망자 수(명)	사망원인(사망률) <sup>1)</sup>		
		1위	2위	3위
2010	2,937	안전사고 <sup>2)</sup> (8.9)	고의적 자해(자살) (8.8)	악성신생물(암) (3.3)
2011	2,765	고의적 자해(자살) (8.9)	안전사고 (7.8)	악성신생물(암) (3.3)
2012	2,528	고의적 자해(자살) (8.0)	안전사고 (7.1)	악성신생물(암) (3.4)
2013	2,345	고의적 자해(자살) (7.8)	안전사고 (6.4)	악성신생물(암) (3.1)
2014	2,273	고의적 자해(자살) (7.4)	안전사고 (6.9)	악성신생물(암) (2.9)
2015	2,093	고의적 자해(자살) (7.2)	안전사고 (5.7)	악성신생물(암) (2.9)
2016	2,077	고의적 자해(자살) (7.8)	안전사고 (5.5)	악성신생물(암) (3.1)
2017	1,943	고의적 자해(자살) (7.7)	안전사고 (4.9)	악성신생물(암) (2.7)
2018	2,017	고의적 자해(자살) (9.1)	안전사고 (4.6)	악성신생물(암) (2.9)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및 「사망원인통계」

주 : 1) ( ) 안의 수치는 사망률, 사망률 = (사망자수/당해 연도 9~24세 연앙인구)\*10만명

2) 운수사고, 추락, 익사, 화재, 중독, 기타 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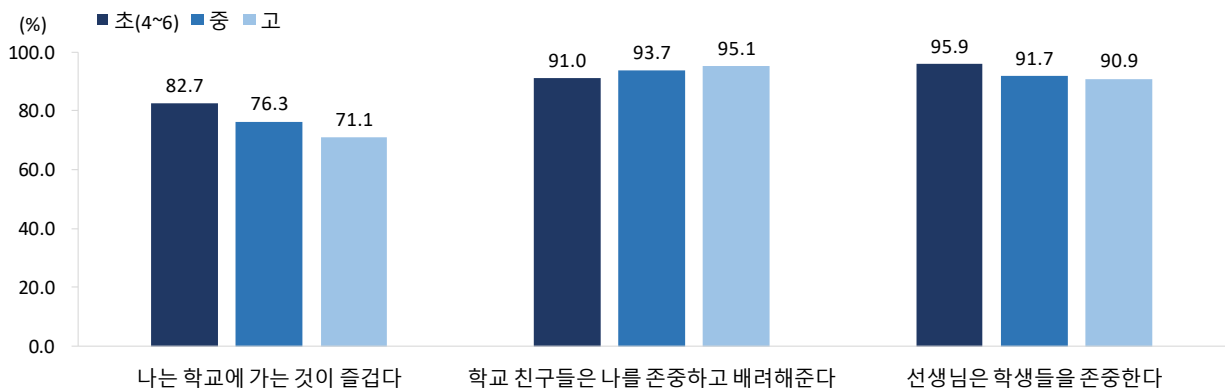
### III. 학습 · 교육

#### 8. 학교생활 만족도

2019년 초(4~6) · 중 · 고등학생 10명 중 8명은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느낌

- '19년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8명(76.5%)은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느낌
  - 학교급이 높을수록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느끼는 학생의 비중은 낮음
    - \* (초등학생) 82.7% → (중학생) 76.3% → (고등학생) 71.1%
- '19년 초·중·고등학생 중 93.3%는 학교 친구들이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준다고 느끼며, 92.7%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존중한다고 느낌

< 학교급별 학교생활 만족도(2019년)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학교생활 만족도<sup>1)</sup> >

(단위 : %)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그렇다 <sup>2)</sup>	그렇지 않다 <sup>3)</sup>	그렇다 <sup>2)</sup>	그렇지 않다 <sup>3)</sup>	그렇다 <sup>2)</sup>	그렇지 않다 <sup>3)</sup>
2015	76.5	23.5	90.7	9.2	89.1	10.9
2016	77.0	23.0	91.4	8.6	88.4	11.6
2017	76.0	24.0	92.7	7.3	90.3	9.7
2018	76.6	23.4	93.8	6.1	91.1	8.9
2019	76.5	23.5	93.3	6.7	92.7	7.2
초(4~6)	82.7	17.2	91.0	9.1	95.9	4.2
중	76.3	23.7	93.7	6.2	91.7	8.3
고	71.1	28.9	95.1	4.9	90.9	9.1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초(4~6)·중·고등학생 대상

주 : 1) 최근 1년 동안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2)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를 합한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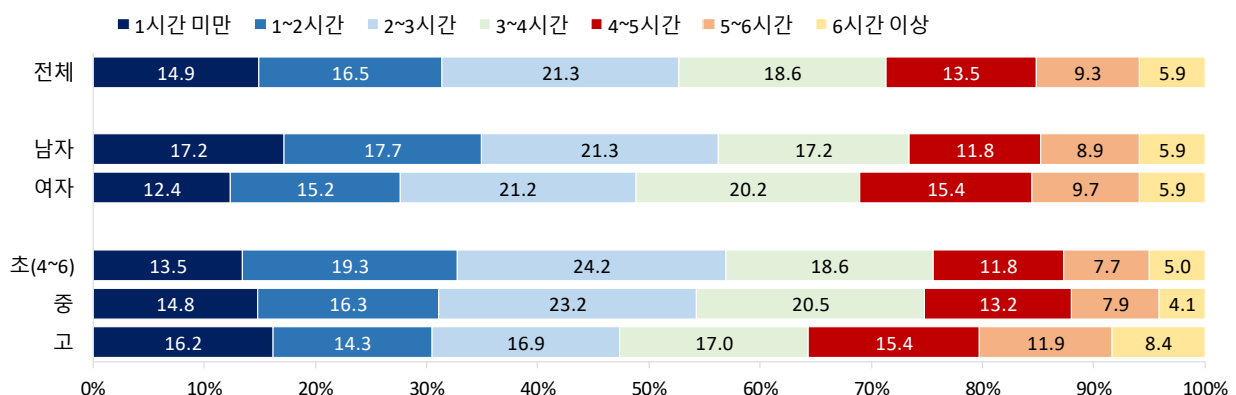
3)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합한 값

## 9. 학습시간

2019년 초(4~6)·중·고등학생 10명 중 5명은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학습함

- '19년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5명(47.3%)은 평일에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평균 3시간 이상 학습함
  -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2명(21.3%)은 하루 평균 2~3시간 학습하며, 10명 중 3명(31.4%)은 2시간 미만 학습함
-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습시간이 더 많음
- 초·중학생은 2~3시간, 고등학생은 3~4시간 학습하는 학생이 가장 많으며, 4시간 이상 학습하는 비중은 고등학생이 초·중학생보다 10%p 이상 높음

< 학습시간(2019년)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학습시간<sup>1)</sup> >

(단위 : %)

	1시간 미만	1~2시간	2~3시간	3~4시간	4~5시간	5~6시간	6시간 이상
2013	20.5	25.0	21.9	15.3	9.8	4.7	2.9
2014	15.0	18.2	20.4	16.4	13.2	9.6	7.2
2015	16.4	16.9	20.1	19.0	13.1	8.6	6.1
2016	15.1	15.7	19.9	19.5	13.7	9.7	6.5
2017	14.5	17.7	20.9	19.8	13.3	7.7	6.2
2018	15.6	16.5	22.3	19.1	13.5	7.8	5.2
2019	14.9	16.5	21.3	18.6	13.5	9.3	5.9
남자	17.2	17.7	21.3	17.2	11.8	8.9	5.9
여자	12.4	15.2	21.2	20.2	15.4	9.7	5.9
초(4~6)	13.5	19.3	24.2	18.6	11.8	7.7	5.0
중	14.8	16.3	23.2	20.5	13.2	7.9	4.1
고	16.2	14.3	16.9	17.0	15.4	11.9	8.4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초(4~6)·중·고등학생 대상

주 : 1) 정규 수업시간 제외(방과 후 수업, 학원수업, 과외, 자습 등이 모두 포함됨)

## 10. 사교육

2019년 초·중·고등학생 4명 중 3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주당 평균 6.5시간을 사교육에 할애함

□ '19년 초·중·고등학생 4명 중 3명(74.8%)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16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초등학생은 10명 중 8명(83.5%)이, 중학생은 10명 중 7명(71.4%)이, 고등학생은 10명 중 6명(61.0%)이 사교육을 받음

□ '19년 주당 평균 사교육 시간은 6.5시간으로 '15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 사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sup>1)</sup> >

(단위 : %, 시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참여율	참여시간	참여율	참여시간	참여율	참여시간	참여율	참여시간
2012	69.4	6.0	80.9	7.0	70.6	6.6	50.7	3.9
2013	68.8	5.9	81.8	6.9	69.5	6.5	49.2	3.8
2014	68.6	5.8	81.1	6.6	69.1	6.5	49.5	4.0
2015	68.8	5.7	80.7	6.4	69.4	6.4	50.2	4.1
2016	67.8	6.0	80.0	6.8	63.8	6.2	52.4	4.6
2017	71.2	6.1	82.7	6.7	67.4	6.4	55.9	4.9
2018	72.8	6.2	82.5	6.5	69.6	6.5	58.5	5.3
2019	74.8	6.5	83.5	6.8	71.4	6.8	61.0	5.7

자료 :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주 : 1) 주당 평균 사교육 참여시간

□ '19년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56.7%, 예체능·취미·교양 사교육 참여율은 44.0%임

○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16년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예체능·취미·교양 사교육 참여율은 '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 과목별 사교육 참여율 >

(단위 : %)

	사교육 참여율	일반교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예체능 취미교양
2012	69.4	58.6	22.3	46.3	47.8	14.0	30.9
2013	68.8	57.1	19.8	44.0	45.8	11.5	32.1
2014	68.6	56.4	18.8	42.9	45.3	10.8	32.6
2015	68.8	54.7	17.3	40.8	42.5	9.7	34.6
2016	67.8	51.0	17.7	39.1	42.3	10.4	37.8
2017	71.2	52.2	18.9	39.8	43.3	11.2	41.1
2018	72.8	53.4	19.9	40.9	44.2	11.2	42.5
2019	74.8	56.7	21.3	44.1	47.2	12.0	44.0

자료 :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 11. 학업성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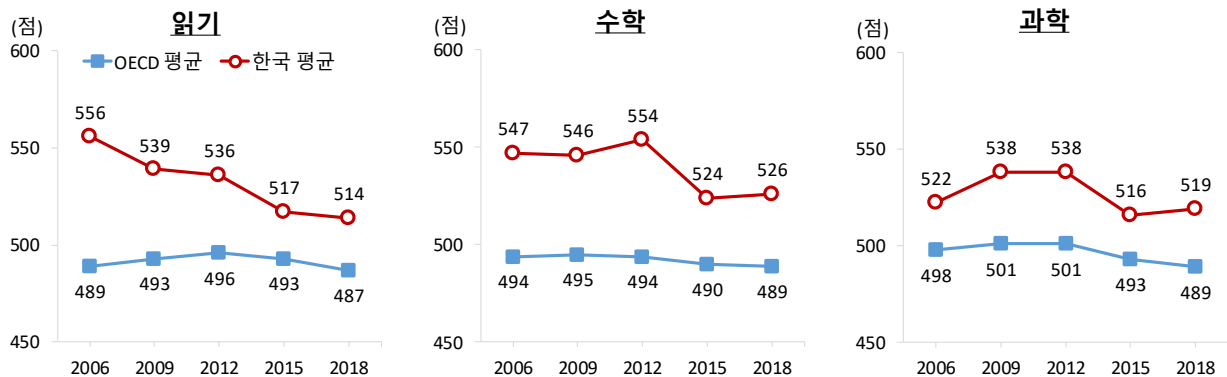
PISA 2018 결과 우리나라 15세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상위 수준으로 모든 영역에서 OECD 평균을 상회함

- PISA\* 2018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읽기 2~7위, 수학 1~4위, 과학 3~5위로 세계 상위 수준을 유지함

\*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OECD 주관 국제학업성취도평가

- 우리나라 학생의 영역별 평균점수는 읽기 514점, 수학 526점, 과학 519점으로 OECD 평균점수보다 27점, 37점, 30점 각각 높음
- 읽기 영역은 여학생이, 수학과 과학 영역은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성취도가 높음

### < 영역별 학업성취도 >



자료 : OECD, 「PISA」

### < 학업성취도 >

(단위 : 점)

		2006	2009	2012	2015	2018
읽기	OECD 평균	489	493	496	493	487
	한국 평균	556(1)	539(1~2)	536(1~2)	517(3~8)	514(2~7)
	남학생	539	523	525	498	503
	여학생	574	558	548	539	526
수학	OECD 평균	494	495	494	490	489
	한국 평균	547(1~2)	546(1~2)	554(1)	524(1~4)	526(1~4)
	남학생	552	548	562	521	528
	여학생	543	544	544	528	524
과학	OECD 평균	498	501	501	493	489
	한국 평균	522(5~9)	538(2~4)	538(2~4)	516(5~8)	519(3~5)
	남학생	521	537	539	511	521
	여학생	523	539	536	521	517

자료 : OECD, 「PISA」, 만 15세 학생 대상

주 : ( )안의 수치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순위

## 12. 진학을 및 취업률

2019년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 7명은 대학교에 진학함

- '19년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 7명(70.4%)은 대학교에 진학하였으며, 대학 진학률은 '17년 이후 소폭 증가하고 있음
- 여자(74.5%)가 남자(66.6%)보다 대학 진학률이 높으며, 그 격차가 계속 증가하다가 '19년 보합세를 보임

### < 대학진학률<sup>1)</sup> >

(단위 :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72.5	71.3	70.7	70.9	70.8	69.8	68.9	69.7	70.4
남자	70.2	68.6	67.4	67.6	67.3	66.3	65.3	65.9	66.6
여자	75.0	74.3	74.5	74.6	74.6	73.5	72.7	73.8	74.5
차이(여-남)	4.8	5.7	7.1	7.0	7.3	7.2	7.4	7.9	7.9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교육부, 「교육기본통계조사」

주 : 1)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중 국내·외 상급학교에 진학한 사람의 비중(재수생 미포함)

- '19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률은 전년 대비 5.8%p 감소한 24.9%임
- '11년 23.3%였던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률은 '17년 34.7%까지 증가하였다가 '17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 '18년 대학교 졸업 후 취업률은 전년 대비 1.5%p 증가한 67.7%임
- 전문대학(71.1%)이 일반대학(64.2%)보다 대학교 졸업 후 취업률이 높음

### < 졸업 후 취업률 >

(단위 :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률 <sup>1)</sup>	23.3	29.3	30.2	33.5	34.3	33.9	34.7	30.7	24.9
대학교 졸업 후 취업률 <sup>2)</sup>	67.6	68.1	67.4	67.0	67.5	67.7	66.2	67.7	-
전문대학	67.8	68.1	67.9	67.8	69.5	70.6	69.8	71.1	-
대학 <sup>3)</sup>	65.5	66.0	64.8	64.5	64.4	64.3	62.6	64.2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교육부, 「교육기본통계조사」, 「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조사」

주 : 1) (당해 연도 졸업자 중 취업자) / (졸업자-진학자-입대자) × 100

2) (당해 연도 졸업자 중 취업자) / (졸업자-진학자-취업불가능자-제외인정자-외국인유학생)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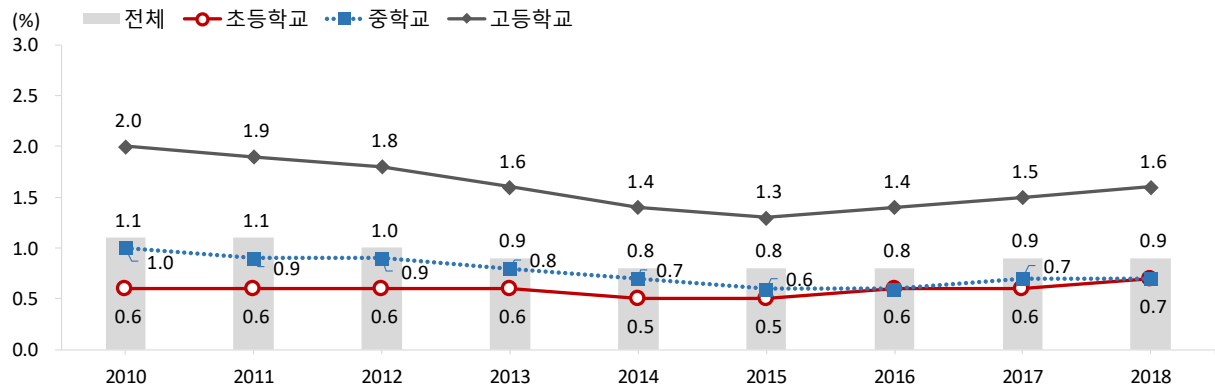
3) 일반대학

### 13. 학업중단율

2018년 초·중·고등학생 100명 중 1명은 학업을 중단함

- '18년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0.9%로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임
- 학교급별 학업중단율은 초등학생 0.7%, 중학생 0.7%, 고등학생 1.6%로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음
- '10년 1.1%였던 학업중단율은 '14년 0.8%까지 낮아졌다가 '17년 0.9%로 오른 후 다시 보합세를 이룸

#### < 학업중단율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교육부, 「교육기본통계조사」

#### < 학업중단율<sup>1)</sup> >

(단위 : %)

	전체	초등학교 <sup>2)</sup>	중학교 <sup>2)</sup>	고등학교 <sup>3)</sup>
2010	1.1	0.6	1.0	2.0
2011	1.1	0.6	0.9	1.9
2012	1.0	0.6	0.9	1.8
2013	0.9	0.6	0.8	1.6
2014	0.8	0.5	0.7	1.4
2015	0.8	0.5	0.6	1.3
2016	0.8	0.6	0.6	1.4
2017	0.9	0.6	0.7	1.5
2018	0.9	0.7	0.7	1.6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교육부, 「교육기본통계조사」

주 : 1) 학업 중단자 수 / 학생 수

2)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 중단자로 봄

3) 고등학교의 학업 중단 사유는 자퇴, 퇴학, 유예, 면제, 제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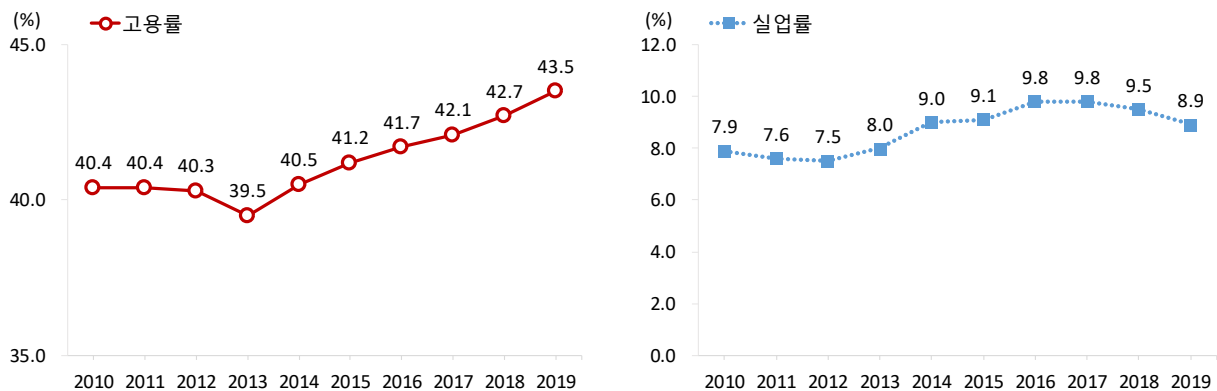
## IV. 경제활동

### 14. 고용동향

2019년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8%p 증가한 43.5%이며, 청년층 실업률은 전년 대비 0.6%p 감소한 8.9%임

- '19년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 대비 0.8%p 증가한 43.5%로 '13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연령대별로는 15~19세 7.6%, 20~24세 43.5%, 25~29세 70.4%로 나타남
- '19년 청년층 실업률은 전년 대비 0.6%p 감소한 8.9%임
  - '12년 7.5%였던 청년층 실업률은 '16년 9.8%까지 증가하였다가 '17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 청년층(15~29세) 고용률 및 실업률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청년층(15~29세) 고용률 및 실업률 >

(단위 : %)

	고용률 <sup>1)</sup>	15~19세	20~24세	25~29세	실업률 <sup>2)</sup>	15~19세	20~24세	25~29세
2010	40.4	6.1	44.4	68.1	7.9	11.9	9.4	6.9
2011	40.4	6.8	43.3	69.6	7.6	10.8	9.4	6.4
2012	40.3	7.0	44.5	69.2	7.5	8.9	9.0	6.6
2013	39.5	6.9	43.3	68.8	8.0	10.3	9.2	7.1
2014	40.5	7.7	44.8	69.0	9.0	9.3	10.2	8.3
2015	41.2	7.8	46.1	68.9	9.1	10.6	10.5	8.1
2016	41.7	8.0	46.1	69.5	9.8	10.0	10.8	9.2
2017	42.1	8.4	45.3	68.7	9.8	8.7	10.6	9.5
2018	42.7	7.4	43.7	70.2	9.5	9.3	10.7	8.8
2019	43.5	7.6	43.5	70.4	8.9	8.6	10.7	8.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5~29세 대상

주 : 1) 청년층(15~29세)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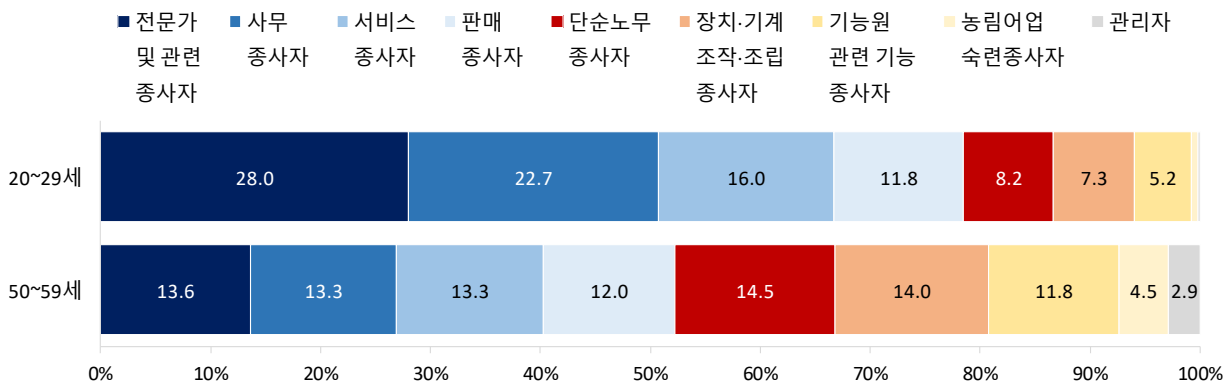
2)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 15. 직업별 취업자

2019년 20~29세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8.0%), 사무 종사자(22.7%), 서비스 종사자(16.0%) 순으로 많게 나타남

- '19년 2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374만 7천 명임
- 직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20대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8.0%), 사무 종사자(22.7%), 서비스 종사자(16.0%) 순이나,
  - 부모세대인 50대 취업자는 단순 노무 종사자(14.5%),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4.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3.6%) 순임

<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2019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직업별 취업자 >

(단위 : 천명, %)

		취업자 수	직업별 구성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및 조립 종사자	기능원 관련기능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관리자
20~ 29세	2013	3,504	30.3	25.3	12.2	11.8	7.0	7.8	4.6	0.9	0.2
	2014	3,556	29.6	24.5	13.4	11.8	7.0	8.2	4.4	0.8	0.2
	2015	3,619	29.2	23.9	13.5	12.2	7.5	8.5	4.3	0.6	0.2
	2016	3,664	29.4	23.9	13.9	11.9	7.4	8.3	4.6	0.5	0.2
	2017	3,660	29.2	23.9	14.3	12.2	7.6	7.7	4.6	0.5	0.2
	2018	3,699	28.7	24.0	14.8	11.5	8.0	7.5	5.0	0.4	0.2
	2019	3,747	28.0	22.7	16.0	11.8	8.2	7.3	5.2	0.6	0.2
50~ 59세	2013	5,704	10.9	9.2	13.5	12.6	16.8	16.1	11.9	6.2	2.9
	2014	5,947	11.4	9.6	13.8	12.6	15.9	16.3	11.9	5.6	2.9
	2015	6,068	12.3	10.4	13.2	12.5	15.8	16.1	12.1	4.9	2.7
	2016	6,150	13.1	11.4	13.2	12.0	15.5	15.9	11.9	4.4	2.5
	2017	6,302	13.6	11.9	12.8	12.5	15.1	15.7	11.9	4.2	2.4
	2018	6,346	13.6	12.6	13.0	12.7	14.8	14.9	11.4	4.3	2.7
	2019	6,444	13.6	13.3	13.3	12.0	14.5	14.0	11.8	4.5	2.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한국표준직업분류 7차 개정(2018년) 기준

## 16. 임금수준

2018년 20~24세 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199만 8천 원,  
25~29세 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246만 6천 원임

- '18년 20~24세(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은 199만 8천 원임
  - 남자가 여자보다 임금수준이 평균 약 14만 원 높으며,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15년 이후 계속 벌어지고 있음
  - 대졸이상 임금수준이 고졸과 전문대졸 대비 약 20만 원 높음

### < 20~24세<sup>1)</sup> 임금수준 >

(단위 : 천원, %)

	20~24세	전년대비	남자	여자	남녀 임금차이	고졸	전문 대졸	대졸 이상	대졸이상-고졸 임금차이
2010	1,427	3.3	1,446	1,418	28	1,365	1,403	1,563	198
2011	1,575	10.4	1,609	1,557	52	1,523	1,548	1,712	189
2012	1,618	2.7	1,641	1,606	35	1,535	1,618	1,768	233
2013	1,672	3.3	1,709	1,652	57	1,605	1,667	1,808	203
2014	1,748	4.5	1,775	1,733	42	1,746	1,714	1,800	54
2015	1,763	0.9	1,788	1,749	39	1,725	1,726	1,876	151
2016	1,819	3.2	1,862	1,794	68	1,772	1,801	1,914	142
2017	1,855	2.0	1,928	1,809	119	1,790	1,824	2,015	225
2018	1,998	7.7	2,085	1,944	141	1,942	1,954	2,141	199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주 : 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가 대상이며, 매년 6월 기준 정액 및 초과급여임(특별급여 제외)

- '18년 25~29세(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은 246만 6천 원임
  - 남자가 여자보다 임금수준이 평균 약 19만 원 높으며, 대졸이상 임금수준이 고졸과 전문대졸 대비 약 30만 원, 27만 원 각각 높음

### < 25~29세<sup>1)</sup> 임금수준 >

(단위 : 천원, %)

	25~29세	전년대비	남자	여자	남녀 임금차이	고졸	전문 대졸	대졸 이상	대졸이상-고졸 임금차이
2010	1,841	4.8	1,941	1,728	213	1,640	1,702	2,031	391
2011	1,942	5.5	2,011	1,856	155	1,770	1,833	2,103	333
2012	2,017	3.9	2,088	1,933	155	1,818	1,900	2,181	363
2013	2,087	3.5	2,162	2,002	160	1,900	1,967	2,237	337
2014	2,192	5.0	2,267	2,106	161	2,065	2,074	2,308	243
2015	2,218	1.2	2,302	2,122	180	2,052	2,109	2,341	289
2016	2,282	2.9	2,365	2,187	178	2,133	2,150	2,397	264
2017	2,352	3.1	2,446	2,247	199	2,170	2,233	2,472	302
2018	2,466	4.8	2,554	2,368	186	2,289	2,323	2,591	302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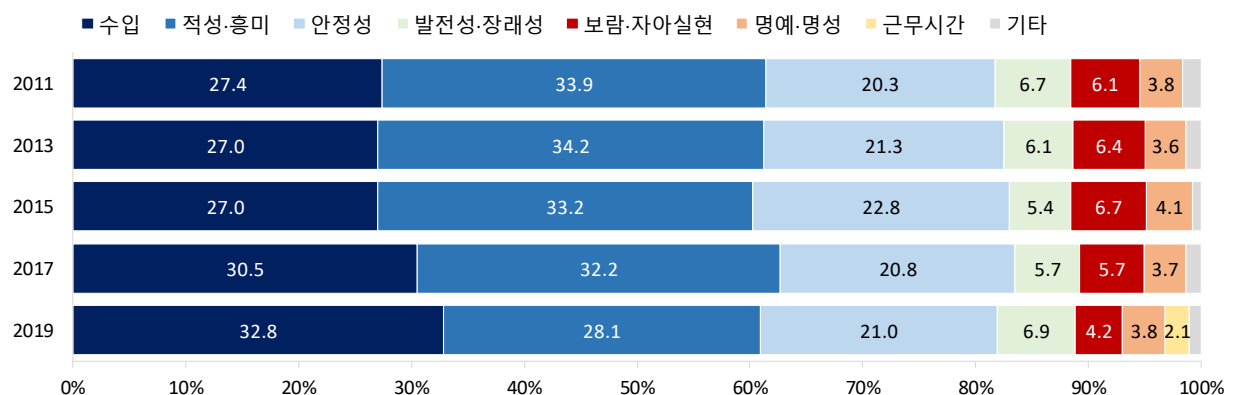
주 : 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가 대상이며, 매년 6월 기준 정액 및 초과급여임(특별급여 제외)

## 17. 직업 선택 요인

2019년 청소년(13~24세)이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수입(32.8%), 적성·흥미(28.1%), 안정성(21.0%) 순임

- '19년 청소년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수입(32.8%)이며, 다음으로 적성·흥미(28.1%), 안정성(21.0%) 순임
- 수입을 중요시하는 비중은 '13년 27.0%에서 '19년 32.8%까지 증가함
- 남자는 여자보다 수입, 명예·명성 등을 더 중요시하며, 여자는 적성·흥미, 안정성 등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13~19세는 20~24세보다 적성·흥미, 명예·명성 등을 더 중요시하며, 20~24세는 안정성, 근무시간 등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직업 선택 요인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 < 직업 선택 요인 >

(단위 : %)

	계	수입	적성 흥미	안정성	발전성 장래성	보람 자아실현	명예 명성	근무 시간 <sup>1)</sup>	기타 <sup>2)</sup>
2011	100.0	27.4	33.9	20.3	6.7	6.1	3.8	-	1.7
2013	100.0	27.0	34.2	21.3	6.1	6.4	3.6	-	1.4
2015	100.0	27.0	33.2	22.8	5.4	6.7	4.1	-	0.8
2017	100.0	30.5	32.2	20.8	5.7	5.7	3.7	-	1.4
2019	100.0	32.8	28.1	21.0	6.9	4.2	3.8	2.1	1.1
남자	100.0	34.3	26.8	20.1	7.2	3.5	4.7	2.3	1.1
여자	100.0	31.4	29.3	21.9	6.6	5.0	2.8	2.0	1.0
13~19세	100.0	32.3	30.2	19.7	6.7	4.2	4.3	1.3	1.3
20~24세	100.0	33.4	25.6	22.5	7.1	4.3	3.1	3.1	0.8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주 : 1) 2019년 신규 추가 항목

2) '모르겠음' 포함

## 18. 선호하는 직장

2019년 13~19세가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22.8%), 대기업(21.3%), 공기업(17.2%) 순이며, 20~24세는 공기업(23.0%), 국가기관(21.5%), 대기업(16.0%) 순임

□ '19년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22.2%)이며, 다음으로 공기업(19.9%), 대기업(18.8%), 자영업(10.2%)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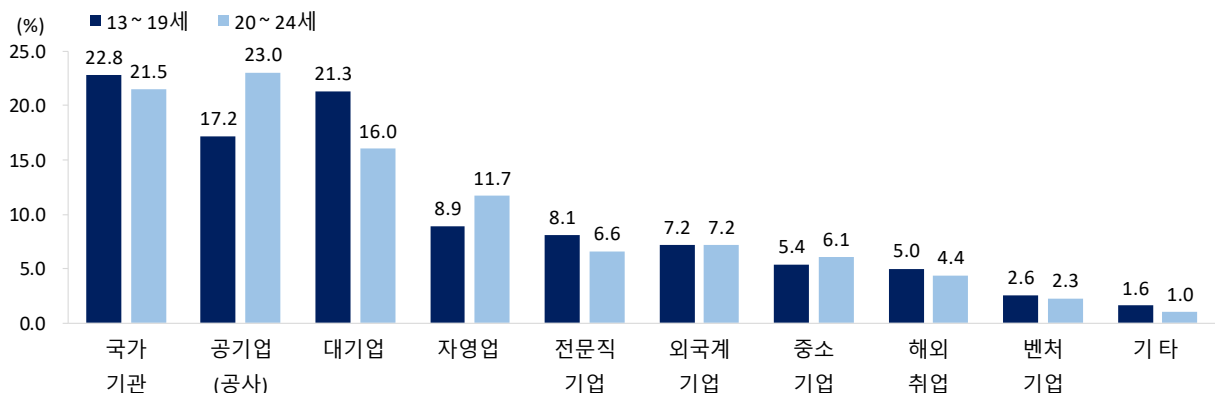
○ 국가기관, 전문직 기업에 대한 선호도는 '17년 대비 감소한 반면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도는 증가함

○ 공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도는 '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공기업: ('11) 13.1% → ('19) 19.9%, 중소기업: ('11) 2.6% → ('19) 5.7%

□ 13~19세가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22.8%), 대기업(21.3%), 공기업(17.2%) 순이며, 20~24세는 공기업(23.0%), 국가기관(21.5%), 대기업(16.0%) 순임

< 연령대별 선호하는 직장(2019년)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 선호하는 직장 >

(단위 : %)

	계	국가 기관	공기업 (공사 공단)	대기업	자영업 (창업)	전문직 기업	외국계 기업	중소 기업	해외 취업	벤처 기업	기타
2011	100.0	28.3	13.1	22.9	9.0	10.2	5.4	2.6	3.0	3.2	2.4
2013	100.0	28.6	15.4	22.1	7.6	8.5	6.0	3.1	3.0	2.8	2.9
2015	100.0	23.7	18.1	20.0	9.8	9.4	6.6	3.2	3.7	3.7	1.8
2017	100.0	25.0	18.2	16.1	9.9	9.2	7.3	4.1	4.7	3.3	2.1
2019	100.0	22.2	19.9	18.8	10.2	7.4	7.2	5.7	4.7	2.4	1.3
13~19세	100.0	22.8	17.2	21.3	8.9	8.1	7.2	5.4	5.0	2.6	1.6
20~24세	100.0	21.5	23.0	16.0	11.7	6.6	7.2	6.1	4.4	2.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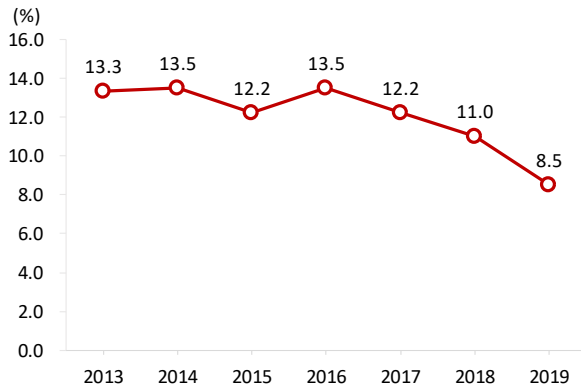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 19. 아르바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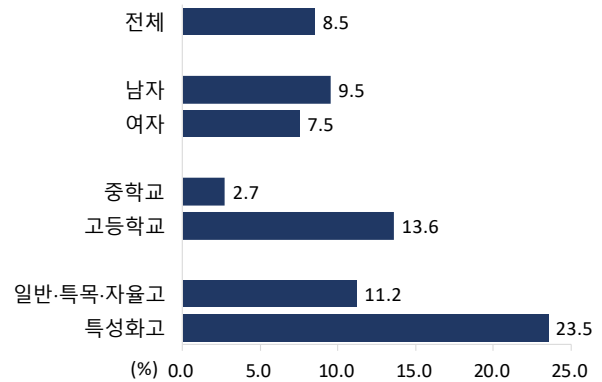
2019년 중학생 100명 중 3명, 고등학생 100명 중 14명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음

- '19년 중·고등학생 100명 중 9명(8.5%)은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16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음
-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고등학생(13.6%)이 중학생(2.7%)보다, 고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23.5%)가 일반·특목·자율고(11.2%)보다 높게 나타남
- 남자(9.5%)가 여자(7.5%)보다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높음

< 아르바이트 경험 추이 >



< 아르바이트 경험(2019년)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아르바이트 경험<sup>1)</sup> >

(단위 : %)

	전체	남자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특목·자율고	특성화고
2013	13.3	13.9	12.7	6.5	19.8	15.2	41.1
2014	13.5	15.2	11.6	6.7	19.9	15.1	42.2
2015	12.2	12.1	12.3	4.3	19.5	13.7	45.0
2016	13.5	15.1	11.8	5.1	21.0	14.4	48.1
2017	12.2	11.9	12.5	5.0	18.1	12.6	41.2
2018	11.0	11.4	10.5	3.1	17.5	13.2	35.7
2019	8.5	9.5	7.5	2.7	13.6	11.2	23.5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고등학생 대상

주 : 1)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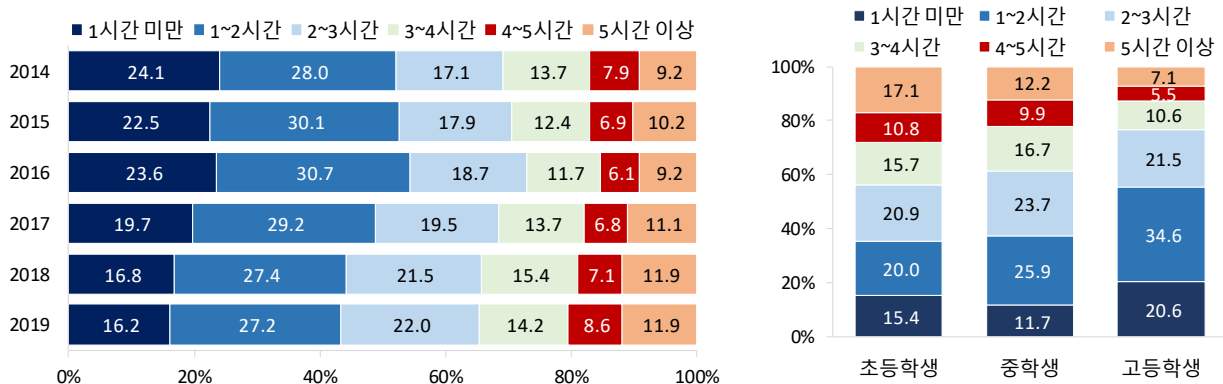
## V. 여가

### 20. 여가활동

2019년 초(4~6)·중·고등학생 10명 중 4명은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이 2시간 미만임

- '19년 초·중·고등학생이 평일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1~2시간 (27.2%), 2~3시간(22.0%), 1시간 미만(16.2%), 3~4시간(14.2%) 순임
  - 여가시간이 2시간 미만인 비중은 '16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음
    - \* ('16) 54.3% → ('17) 48.9% → ('18) 44.2% → ('19) 43.4%
- 초등학생은 2~3시간, 중·고등학생은 1~2시간의 여가시간을 갖는 학생이 가장 많음
  - 학교급이 높을수록 평일 여가시간이 2시간 미만인 학생의 비중이 높음
    - \* (초등학교) 35.4% → (중학교) 37.6% → (고등학교) 55.2%

< 여가활동 시간(연도별, 2019년 학교급별)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여가활동 시간<sup>1)</sup> >

(단위 : %)

	1시간 미만	1~2시간	2~3시간	3~4시간	4~5시간	5시간 이상
2014	24.1	28.0	17.1	13.7	7.9	9.2
2015	22.5	30.1	17.9	12.4	6.9	10.2
2016	23.6	30.7	18.7	11.7	6.1	9.2
2017	19.7	29.2	19.5	13.7	6.8	11.1
2018	16.8	27.4	21.5	15.4	7.1	11.9
2019	16.2	27.2	22.0	14.2	8.6	11.9
남자	15.2	27.7	21.9	13.5	8.4	13.3
여자	17.2	26.6	22.1	14.8	8.8	10.5
초(4~6)	15.4	20.0	20.9	15.7	10.8	17.1
중	11.7	25.9	23.7	16.7	9.9	12.2
고	20.6	34.6	21.5	10.6	5.5	7.1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초(4~6)·중·고등학생 대상

주 : 1) 평일 학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하루 여가(자유)시간

2019년 청소년(13~24세)은 여가활동으로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을 가장 많이 하며,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관광활동을 선호함

- '19년 청소년은 여가활동으로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주중 74.4%, 주말 67.3%)을 가장 많이 하며, 다음으로 휴식활동, TV 및 DVD 시청 순임
  - 주중에는 주말보다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 취미·자기개발활동을 많이 하며, 문화예술 관람, 관광활동은 적게 함
  - 13~19세가 20~24세보다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 스포츠 활동을 더 많이 하며, 20~24세는 문화예술 관람, 휴식활동을 더 많이 함
- 청소년이 향후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관광활동(58.5%)이며, 다음으로 취미·자기개발 활동(48.8%), 문화예술관람(48.5%) 순임
  - 남자는 여자보다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 스포츠 활동 및 관람을 선호하며, 여자는 상대적으로 관광활동, 문화예술 관람, 취미·자기개발 활동을 선호함

#### < 여가활동(2019년, 복수응답) >

(단위 : %)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휴식 활동	TV DVD 시청	취미 자기개발 활동	문화 예술 관람	스포츠 활동	스포츠 관람	사회 기타 활동	문화 예술 참여	관광 활동	기타
주중	74.4	62.0	59.5	33.2	19.0	13.0	5.1	5.1	4.5	2.2	0.1
남자	79.4	58.1	56.1	30.0	14.4	20.6	8.2	4.5	3.4	1.5	0.0
여자	69.3	65.8	62.8	36.4	23.6	5.4	2.1	5.7	5.7	2.9	0.1
13~19세	79.2	60.8	59.9	32.5	15.3	15.1	4.9	3.5	4.9	1.3	0.2
20~24세	68.9	63.3	59.0	34.0	23.1	10.6	5.5	6.9	4.1	3.3	0.0
주말	67.3	62.4	51.1	26.8	32.1	12.2	6.1	10.0	4.2	10.7	0.0
남자	76.4	58.1	48.5	24.9	24.9	20.2	9.2	8.4	3.4	7.6	0.0
여자	58.2	66.7	53.7	28.7	39.3	4.3	2.9	11.5	4.9	13.8	0.0
13~19세	73.9	60.4	53.2	25.5	28.7	14.0	5.9	8.1	4.5	8.0	0.0
20~24세	59.8	64.8	48.7	28.2	36.0	10.3	6.2	12.1	3.8	13.9	0.0
향후	30.2	27.2	14.2	48.8	48.5	25.4	14.8	8.5	13.2	58.5	0.3
남자	42.9	25.9	14.9	42.5	36.7	35.5	21.4	7.0	10.3	51.6	0.2
여자	17.5	28.5	13.5	55.0	60.2	15.3	8.2	9.9	16.2	65.3	0.4
13~19세	39.0	30.1	16.8	44.8	46.2	25.8	15.5	6.2	12.7	52.0	0.3
20~24세	20.2	23.8	11.2	53.2	51.1	24.9	14.0	11.0	13.8	65.9	0.3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 21. 인터넷 이용

2019년 10대 청소년의 주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17시간 33분이며, 20대는 24시간 19분임

- '19년 10대 청소년은 인터넷을 일주일에 17시간 33분 이용함
  - 10대 인터넷 이용시간은 '13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9년에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13년 대비 3.5시간 증가함
- '19년 20대는 인터넷을 일주일에 24시간 19분 이용함
  - 20대 인터넷 이용시간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13년 대비 4.0시간 증가함

### < 인터넷 주평균 이용시간<sup>1)</sup> >

(단위 : 시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0대	14.1	14.4	14.5	15.4	16.9	17.8	17.6
20대	20.3	20.5	21.0	22.8	23.6	24.2	24.3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주 : 1) 이동전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IPTV,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을 모두 포함

- '19년 10~20대 청소년은 여가활동, 커뮤니케이션, 자료 및 정보 획득 등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함
  - 교육·학습 목적의 인터넷 이용은 10대와 20대에서 '15년 대비 각각 24.8%p, 19.6%p 증가했으며, 홈페이지 등 운영 목적의 인터넷 이용은 10대와 20대에서 '15년 대비 각각 21.4%p, 21.5%p 증가함
  - 20대의 직업·직장 관련 인터넷 이용은 '15년 대비 27.0%p 증가함

### < 인터넷 이용 목적<sup>1)</sup>(복수응답) >

(단위 : %)

		여가활동	커뮤니케이션	자료 및 정보 획득	교육·학습	홈페이지 등 운영	직업·직장
2015	10대	96.7	95.7	85.3	58.7	48.5	6.5
	20대	97.4	100.0	99.6	50.6	70.3	33.8
2016	10대	97.5	95.1	88.4	72.4	51.5	7.9
	20대	98.5	99.9	99.8	60.4	74.7	42.2
2017	10대	98.9	97.1	92.6	73.6	53.8	7.8
	20대	99.4	100.0	100.0	64.3	78.2	51.3
2018	10대	99.5	98.2	95.6	83.8	70.1	7.7
	20대	99.7	100.0	100.0	65.5	90.9	59.8
2019	10대	99.5	98.6	96.0	83.5	69.9	8.9
	20대	99.7	100.0	100.0	70.2	91.8	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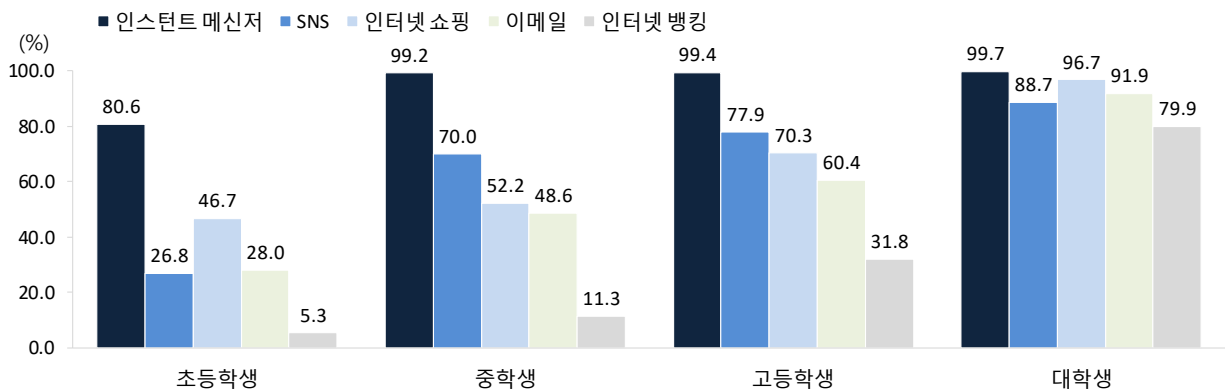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주 : 1) 최근 1년 이용자

2019년 초등학교 10명 중 8명,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은 99% 이상이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함

- '19년 초등학교생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인스턴트 메신저(80.6%), 인터넷 쇼핑(46.7%), 이메일(28.0%), SNS(26.8%), 인터넷 뱅킹(5.3%) 순임
- 중학생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인스턴트 메신저(99.2%), SNS(70.0%), 인터넷 쇼핑(52.2%), 이메일(48.6%), 인터넷 뱅킹(11.3%) 순임
- 고등학생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인스턴트 메신저(99.4%), SNS(77.9%), 인터넷 쇼핑(70.3%), 이메일(60.4%), 인터넷 뱅킹(31.8%) 순임
- 대학생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인스턴트 메신저(99.7%), 인터넷 쇼핑(96.7%), 이메일(91.9%), SNS(88.7%), 인터넷 뱅킹(79.9%) 순임

<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2019년)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sup>1)</sup>(2019년, 복수응답) >

(단위 : %)

	인스턴트 메신저 <sup>2)</sup>	주이용 서비스			SNS	주이용 서비스				인터넷 쇼핑 <sup>3)</sup>	이메일	인터넷 뱅킹 <sup>3)</sup>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라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블로그			
초등학교	80.6	98.9	13.9	4.3	26.8	67.1	42.1	34.6	8.0	46.7	28.0	5.3
중 학 생	99.2	99.1	36.1	6.0	70.0	76.7	63.2	27.3	8.9	52.2	48.6	11.3
고등학교	99.4	99.0	41.6	7.6	77.9	79.5	66.1	27.0	11.1	70.3	60.4	31.8
대 학 생	99.7	98.5	50.5	10.2	88.7	83.3	70.8	22.4	13.8	96.7	91.9	79.9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주 : 1) 최근 1년 이용자

2) 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개인 간 실시간으로 메시지, 사진 등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카카오톡, 라인, 네이버 메신저,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등이 포함

3) 인터넷 쇼핑과 인터넷 뱅킹은 12세 이상임

## 22. 문화 활동

2019년 청소년(13~24세) 10명 중 9명은 문화예술 및 스포츠를 관람함

- '19년 청소년 10명 중 9명(86.2%)은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 및 스포츠를 한 번 이상 관람함
- 이 중 영화(92.7%)를 관람한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음악회·연주회·콘서트(26.0%), 스포츠 관람(24.7%) 순임
  - 연극·마당극·뮤지컬과 박물관 관람 비중은 '13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 여자가 남자보다 스포츠 관람 이외의 모든 문화 활동을 더 많이 함

### < 문화활동 순위 >

	1위	2위	3위
2013	영화	연극·마당극·뮤지컬	박물관 관람
2015	영화	연극·마당극·뮤지컬	박물관 관람
2017	영화	연극·마당극·뮤지컬	스포츠 관람
2019	영화	음악·연주회·콘서트	스포츠 관람
남자	영화	스포츠 관람	음악·연주회·콘서트
여자	영화	음악·연주회·콘서트	연극·마당극·뮤지컬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복수응답) >

(단위 : %)

	관람함 <sup>1)</sup>	영 화	음악회· 연주회· 콘서트	스포츠 관람	연극· 마당극· 뮤지컬	미술관 관람	박물관 관람	무용
2013	87.1	90.1	22.6	22.6	27.5	19.7	23.7	3.1
2015	87.1	92.3	21.9	21.7	26.1	18.9	22.4	2.2
2017	87.5	93.2	21.9	24.5	25.6	20.5	20.7	2.8
2019	86.2	92.7	26.0	24.7	22.5	20.0	16.8	2.0
남자	81.8	91.7	19.6	33.3	15.0	14.9	15.7	1.3
여자	90.5	93.6	31.8	17.0	29.3	24.5	17.8	2.8
13~19세	86.7	91.2	24.8	23.1	21.8	16.7	19.0	3.1
20~24세	85.6	94.5	27.4	26.6	23.3	23.7	14.3	0.8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주 : 1)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 동안 공연, 전시 및 스포츠를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

## VI. 사회참여 · 의식

### 23. 봉사활동

2019년 청소년(13~24세) 10명 중 5명은 자원봉사경험이 있으며,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서 주로 봉사함

- '19년 청소년 10명 중 5명(46.9%)은 지난 1년 내 자원봉사경험이 있으며, 6명(55.0%)은 향후 1년 이내 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
  - 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중과 향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청소년 비중 모두 '11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음
  - 13~19세(76.1%)의 봉사활동 참여도가 20~24세(13.7%)의 5.6배 수준임

#### < 봉사활동 참여 >

(단위 : %, 회, 시간)

	참여 경험		참여 횟수 및 시간		향후 1년 이내 참여 의향	
	있음 <sup>1)</sup>	없음	평균 횟수	평균 시간 <sup>2)</sup>	있음	없음
2011	55.1	44.9	4.9	16.6	70.8	29.2
2013	54.7	45.3	5.6	18.3	69.1	30.9
2015	49.5	50.5	5.8	17.8	59.9	40.1
2017	49.4	50.6	6.1	18.6	58.8	41.2
2019	46.9	53.1	5.9	16.1	55.0	45.0
13~19세	76.1	23.9	5.8	15.3	67.0	33.0
20~24세	13.7	86.3	6.7	21.5	41.2	58.8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주 : 1)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 동안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는 사람

2) 자원봉사활동 참여인구 1인당 연간 평균 참여시간

- '19년 청소년 봉사자들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시설 등에서 주로 봉사함

#### < 봉사활동 참여분야 >

(단위 : %)

	참여자 <sup>1)</sup>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환경보건 범죄예방	국가 및 지역행사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기타 (무료상담 등)
2011	55.1	60.4	20.4	7.6	2.4	26.2
2013	54.7	69.1	16.6	6.7	1.5	21.9
2015	49.5	61.6	17.2	7.6	1.7	27.9
2017	49.4	54.3	16.4	9.3	1.4	34.8
2019	46.9	59.3	18.3	8.7	1.8	27.8
13~19세	76.1	56.5	20.1	8.3	0.7	30.2
20~24세	13.7	77.6	6.4	11.3	9.3	12.5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주 : 1)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 동안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는 사람

## 24. 사회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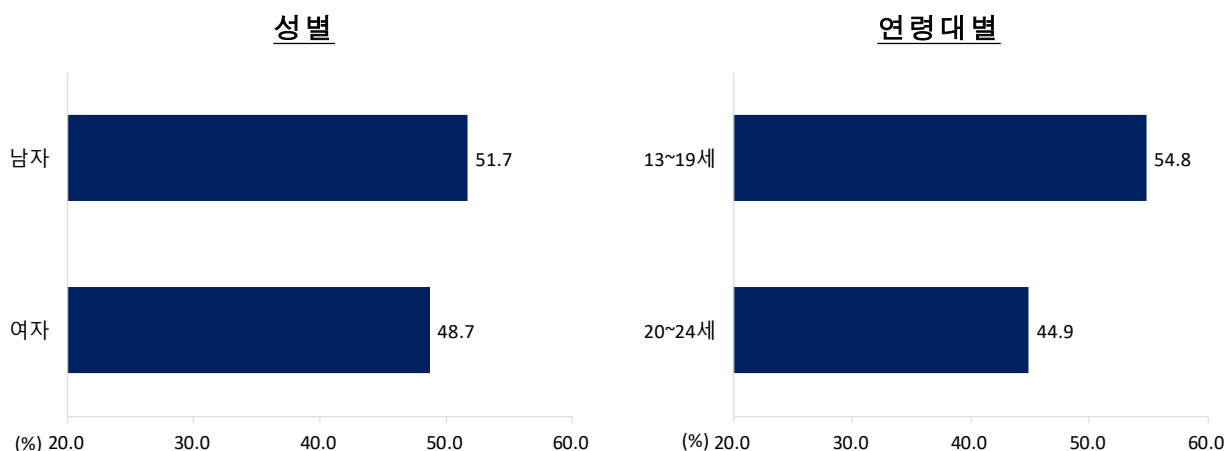
2019년 청소년(13~24세) 10명 중 5명은 우리 사회를 신뢰함

□ '19년 청소년 10명 중 5명(50.2%)은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함

○ 남자(51.7%)가 여자(48.7%)보다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3.0%p 높음

○ 13~19세(54.8%)가 20~24세(44.9%)보다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9.9%p 높음

### < 사회에 대한 신뢰도(2019년)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 < 사회에 대한 신뢰도(2019년) >

(단위 : %)

	계	믿을 수 있다	매우 믿을 수 있다	약간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별로 믿을 수 없다	전혀 믿을 수 없다
청소년(13~24세)	100.0	50.2	3.9	46.2	49.8	43.5	6.3
남자	100.0	51.7	5.0	46.7	48.3	42.1	6.2
여자	100.0	48.7	2.9	45.8	51.3	44.9	6.4
13~19세	100.0	54.8	5.0	49.7	45.2	39.5	5.7
20~24세	100.0	44.9	2.7	42.2	55.1	48.1	7.0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 25. 사회참여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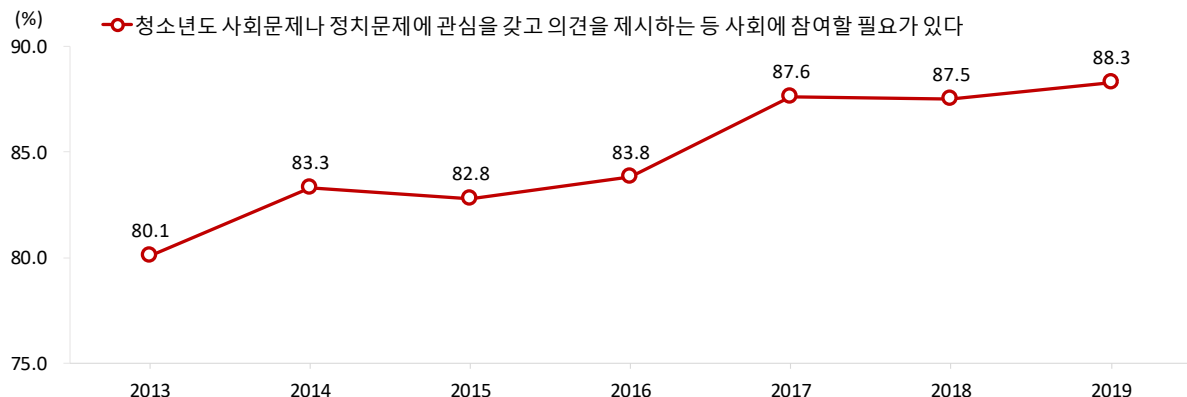
2019년 초(4~6) · 중 · 고등학생 10명 중 9명은 청소년도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함

□ '19년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9명(88.3%)은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청소년 사회참여 의식은 증가하는 추세임
- 여학생(92.3%)이 남학생(84.6%)보다 사회참여 의식이 강함
- 학교급이 높을수록 사회참여 의식이 높음

\* (초등학교) 82.9% → (중학교) 89.0% → (고등학교) 92.6%

### < 사회참여 의식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 사회참여 의식 >

(단위 : %)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013	19.9	7.2	12.7	80.1	57.6	22.5
2014	16.7	4.5	12.2	83.3	57.4	25.9
2015	17.2	4.4	12.8	82.8	58.4	24.4
2016	16.2	4.0	12.2	83.8	57.0	26.8
2017	12.4	3.6	8.8	87.6	51.9	35.7
2018	12.5	2.6	9.9	87.5	54.5	33.0
2019	11.7	3.4	8.3	88.3	53.6	34.7
남자	15.4	4.9	10.5	84.6	51.8	32.8
여자	7.8	1.8	6.0	92.3	55.5	36.8
초(4~6)	17.2	5.4	11.8	82.9	48.6	34.3
중	11.1	2.7	8.4	89.0	56.1	32.9
고	7.4	2.2	5.2	92.6	55.8	36.8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초(4~6)·중·고등학생 대상

## 26. 양성평등 인식

2019년 초(4~6) · 중 · 고등학생의 96.4%가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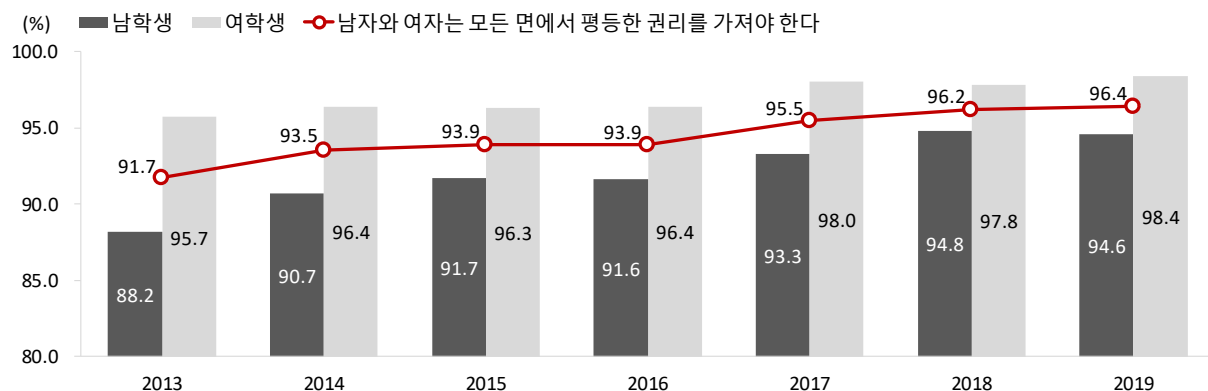
□ '19년 초·중·고등학생의 96.4%는 남자와 여자가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

○ 양성평등 인식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그 강도\*도 세짐

\* 양성평등에 관한 강한 긍정: ('13) 56.3% → ('16) 61.6% → ('19) 73.5%

○ 여학생(98.4%)이 남학생(94.6%)보다,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양성평등 인식이 강함

### < 양성평등 인식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 양성평등 인식 >

(단위 : %)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013	8.2	4.1	4.1	91.7	35.4	56.3
2014	6.5	2.7	3.8	93.5	34.5	59.0
2015	6.1	2.0	4.1	93.9	34.5	59.4
2016	6.1	2.3	3.8	93.9	32.3	61.6
2017	4.4	1.7	2.7	95.5	28.8	66.7
2018	3.8	1.2	2.6	96.2	27.4	68.8
2019	3.6	1.3	2.3	96.4	22.9	73.5
남자	5.4	2.2	3.2	94.6	27.2	67.4
여자	1.7	0.4	1.3	98.4	18.3	80.1
초(4~6)	3.1	1.0	2.1	97.0	16.4	80.6
중	3.2	1.5	1.7	96.8	25.3	71.5
고	4.4	1.4	3.0	95.6	26.6	69.0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초(4~6)·중·고등학생 대상

## 27. 인권 인식

2019년 초(4~6) · 중 · 고등학생 97.3%가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고, 94.6%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19년 초·중·고등학생 97.3%는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 반대 의식은 갈수록 높아지고, 그 강도\*도 세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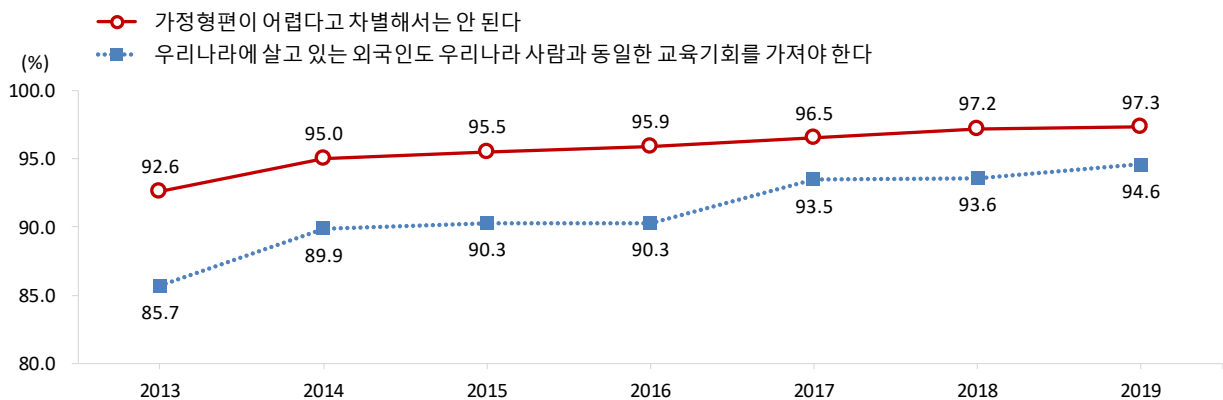
\*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 강한 반대: ('13) 54.5% → ('16) 63.2% → ('19) 75.3%

□ 초·중·고등학생의 94.6%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동일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

○ 이러한 의식경향도 갈수록 높아지고, 그 강도\*도 세짐

\* 외국인 동일한 교육기회 제공 강한 긍정 : ('13) 40.2% → ('16) 50.5% → ('19) 62.3%

### < 차별 의식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 차별 의식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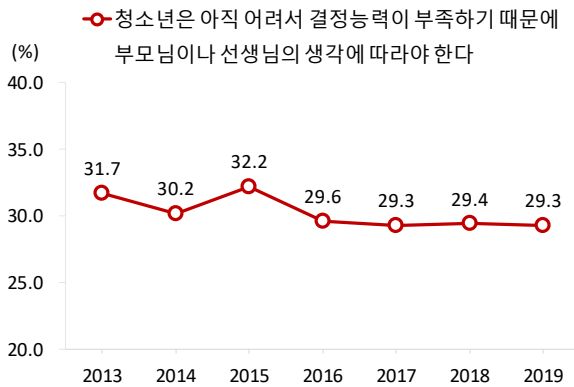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2013	7.5	4.2	3.3	92.6	38.1	54.5
	2014	4.9	2.1	2.8	95.0	34.6	60.4
	2015	4.5	1.6	2.9	95.5	34.6	60.9
	2016	4.0	1.7	2.3	95.9	32.7	63.2
	2017	3.6	1.6	2.0	96.5	29.6	66.9
	2018	2.8	0.9	1.9	97.2	29.1	68.1
	2019	2.7	1.4	1.3	97.3	22.0	75.3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동일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2013	14.3	6.0	8.3	85.7	45.5	40.2
	2014	10.1	3.8	6.3	89.9	40.9	49.0
	2015	9.7	3.4	6.3	90.3	40.3	50.0
	2016	9.6	3.5	6.1	90.3	39.8	50.5
	2017	6.4	2.3	4.1	93.5	35.7	57.8
	2018	6.4	1.9	4.5	93.6	34.1	59.5
	2019	5.4	1.7	3.7	94.6	32.3	62.3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초(4~6)·중·고등학생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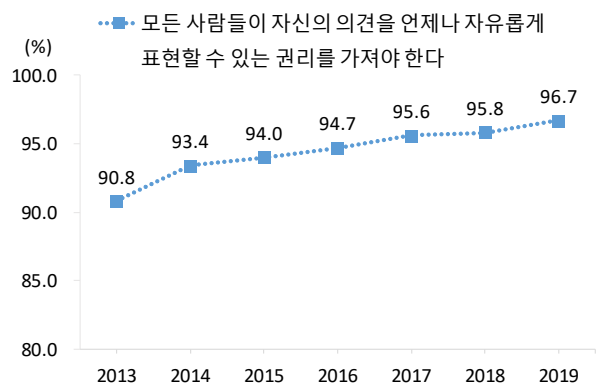
2019년 초(4~6)·중·고등학생 10명 중 7명은 청소년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음

- '19년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7명(70.7%)은 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음
- 초·중·고등학생의 96.7%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식은 갈수록 높아지고, 그 강도\*도 세지는 추세임
-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한 긍정: ('13) 42.5% → ('16) 49.9% → ('19) 61.3%

< 청소년 의사결정능력 >



< 표현의 자유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청소년 의사결정능력 및 표현의 자유 >

(단위 : %)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2013	68.3	26.4	41.9	31.7	26.9	4.8
	2014	69.8	27.3	42.5	30.2	26.2	4.0
	2015	67.8	25.4	42.4	32.2	28.0	4.2
	2016	70.4	27.6	42.8	29.6	25.8	3.8
	2017	70.7	29.7	41.0	29.3	24.8	4.5
	2018	70.6	28.3	42.3	29.4	24.5	4.9
	2019	70.7	29.5	41.2	29.3	25.0	4.3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2013	9.2	4.5	4.7	90.8	48.3	42.5
	2014	6.6	2.5	4.1	93.4	43.9	49.5
	2015	6.0	2.2	3.8	94.0	45.6	48.4
	2016	5.4	2.0	3.4	94.7	44.8	49.9
	2017	4.5	1.7	2.8	95.6	38.5	57.1
	2018	4.2	1.2	3.0	95.8	39.0	56.8
	2019	3.3	1.2	2.1	96.7	35.4	61.3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초(4~6)·중·고등학생 대상

## VII. 안전 · 행동

### 28. 스마트폰 과의존

2019년 10대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임

- '19년 10대 청소년 10명 중 3명(30.2%)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임
  - 여자(31.4%)가 남자(29.2%)보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중이 높음
  - 학교급별로는 중학생(34.7%)이 과의존 위험에 가장 취약하며, 다음으로 고등학생(29.4%), 초등학생(24.4%) 순임

#### < 스마트폰 과의존<sup>1)</sup> 위험군 >

(단위 : %)

	과의존 위험군 (10~19세)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2015	31.6	4.0	27.6
2016	30.6	3.5	27.1
2017	30.3	3.6	26.7
2018	29.3	3.6	25.7
2019	30.2	3.8	26.4
남자	29.2	3.7	25.5
여자	31.4	4.0	27.4
초	24.4	2.8	21.6
중	34.7	4.6	30.1
고	29.4	4.2	25.2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

주 : 1)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

- '19년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주 이용 콘텐츠는 영화·TV·동영상(97.5%)이며, 다음으로 메신저(97.3%), 학업·업무용 검색(93.9%), 게임(93.1%) 등의 순임
  - 초등학생은 영화·TV·동영상(96.9%)을 주로 이용하며, 중·고등학생은 메신저(각각 98.4%, 99.2%)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음

#### < 스마트폰 주 이용 콘텐츠(2019년, 복수응답)<sup>1)</sup> >

(단위 : %)

	영화·TV ·동영상	메신저	학업 ·업무용 검색	게임	관심사 (취미) 검색	음악	SNS
청소년(10~19세)	97.5	97.3	93.9	93.1	91.0	88.5	79.7
초	96.9	79.5	75.1	92.8	67.3	71.6	45.1
중	98.0	98.4	95.2	95.4	93.8	88.9	82.6
고	97.3	99.2	97.5	90.4	94.4	93.8	88.5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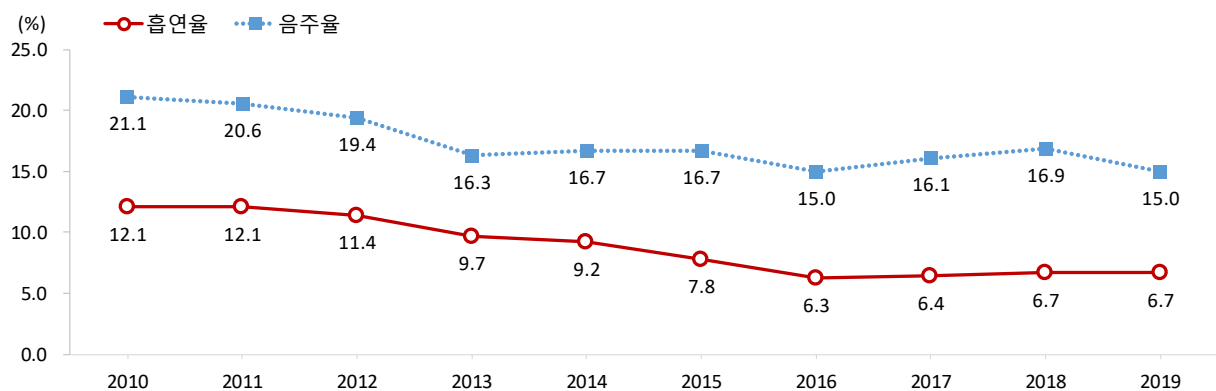
주 : 1)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은 상위 7개 콘텐츠

## 29. 흡연 및 음주

2019년 중·고등학생 100명 중 7명은 최근 30일 내 흡연한 적이, 15명은 음주한 적이 있음

- '19년 중·고등학생 100명 중 7명(6.7%)은 최근 30일 내 흡연한 적이 있음
  - 중학생은 100명 중 3명(3.2%)이, 고등학생은 100명 중 10명(9.9%)이 최근 30일 내 흡연한 적이 있음
- '19년 중·고등학생 100명 중 15명(15.0%)은 최근 30일 내 음주한 적이 있음
  - 중학생은 100명 중 8명(7.6%)이, 고등학생은 100명 중 22명(21.8%)이 최근 30일 내 음주한 적이 있음

### < 흡연율 및 음주율 추이 >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 흡연율 및 음주율 >

(단위 : %)

	현재 흡연율 <sup>1)</sup>			현재 음주율 <sup>2)</sup>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10	12.1	8.0	16.2	21.1	13.3	28.9
2011	12.1	8.1	16.1	20.6	12.0	29.0
2012	11.4	7.2	15.4	19.4	10.3	28.2
2013	9.7	5.5	13.8	16.3	8.3	23.8
2014	9.2	4.7	13.5	16.7	8.3	24.6
2015	7.8	3.3	11.7	16.7	7.4	24.9
2016	6.3	2.5	9.5	15.0	6.5	21.9
2017	6.4	3.0	9.2	16.1	7.6	23.0
2018	6.7	3.0	9.8	16.9	8.5	24.2
2019	6.7	3.2	9.9	15.0	7.6	21.8
남자	9.3	4.0	14.2	16.9	8.0	25.0
여자	3.8	2.3	5.2	13.0	7.1	18.4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중·고등학생 대상

주 : 1)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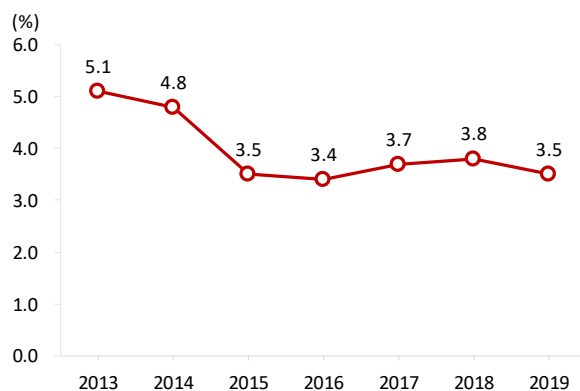
2)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 30. 가출 경험 및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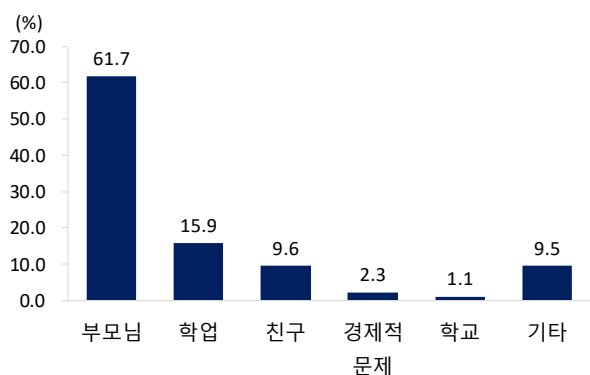
2019년 초(4~6)·중·고등학생 100명 중 4명(3.5%)은 최근 1년 내 가출한 적이 있으며, 부모님과의 문제(61.7%)가 주된 가출 이유임

- '19년 초·중·고등학생의 최근 1년 내 가출 경험률은 3.5%로 전년 대비 0.3%p 감소함
  - 남자(3.8%)가 여자(3.3%)보다,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가출 경험이 많음
- 가출 이유로는 부모님과의 문제(61.7%)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업문제(15.9%),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9.6%) 순임

< 가출 경험 >



< 가출 이유(2019년)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가출 경험 및 이유 >

(단위 : %)

	가출 경험 <sup>1)</sup>	가출 이유 <sup>2)</sup>					
		부모님과의 문제	학업문제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가정의 경제적 문제	학교문제	기타
2013	5.1	65.7	14.5	9.1	0.4	2.1	8.3
2014	4.8	57.4	12.0	16.2	0.2	2.7	11.6
2015	3.5	63.5	12.8	12.4	1.4	3.6	6.2
2016	3.4	60.7	12.4	12.8	0.8	2.7	10.6
2017	3.7	60.9	14.3	10.6	1.7	5.1	7.4
2018	3.8	58.0	15.6	12.0	4.1	3.0	7.2
2019	3.5	61.7	15.9	9.6	2.3	1.1	9.5
남자	3.8	53.3	20.6	11.3	4.1	1.4	9.3
여자	3.3	72.2	9.9	7.3	0.0	0.7	9.8
초(4~6)	2.4	56.9	13.2	10.8	2.9	1.6	14.5
중	4.0	67.1	17.0	7.8	0.7	0.8	6.7
고	4.1	59.6	16.4	10.3	3.3	1.0	9.4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초(4~6)·중·고등학생 대상

주 : 1)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중

2)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는 사람의 주된 가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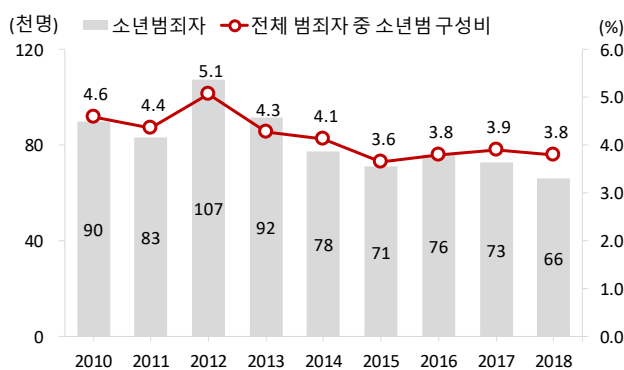
## 31. 소년범죄

2018년 소년범죄자(14~18세)는 6만 6천여 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3.8%를 차지하며, 범죄유형으로는 재산범죄(40.1%)가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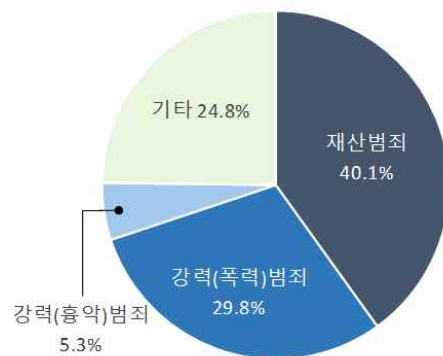
□ '18년 소년 범죄자는 전체 범죄자의 3.8%인 6만 6,142명임

□ 범죄유형으로는 재산범죄가 40.1%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강력(폭력) 범죄 29.8%, 강력(흉악) 범죄 5.3% 순임

< 소년범죄<sup>1)</sup> >



< 범죄유형별 소년범(2018년)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

주 : 1) '18년부터 14세 미만 피의자가 집계에서 제외됨에 따라 연도별 수치 비교 시 주의 필요

< 소년범죄 >

(단위 : 천명, 명, %)

	전체 범죄자 (천명)	소년 범죄자 <sup>1)</sup> (명)	구성비 (%)	범죄유형별 구성비(%)			
				재산범죄 <sup>2)</sup>	강력(폭력) 범죄 <sup>3)</sup>	강력(흉악) 범죄 <sup>4)</sup>	기타 <sup>5)</sup>
2010	1,954	89,776	4.6	45.1	25.9	3.5	25.5
2011	1,908	83,068	4.4	45.7	26.8	4.0	23.6
2012	2,118	107,490	5.1	44.3	30.5	2.9	22.3
2013	2,147	91,633	4.3	49.9	24.1	3.0	22.9
2014	1,880	77,594	4.1	46.7	24.9	4.1	24.2
2015	1,949	71,035	3.6	45.1	24.6	3.8	26.4
2016	2,020	76,000	3.8	43.5	25.6	4.4	26.4
2017	1,862	72,759	3.9	39.9	28.9	4.8	26.4
2018	1,738	66,142	3.8	40.1	29.8	5.3	24.8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

주 : 1) '17년까지는 10~18세 피의자, '18년부터는 14~18세 피의자

2)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등

3) 공갈, 폭행·상해 등

4)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5) 교통사범, 저작권법 위반,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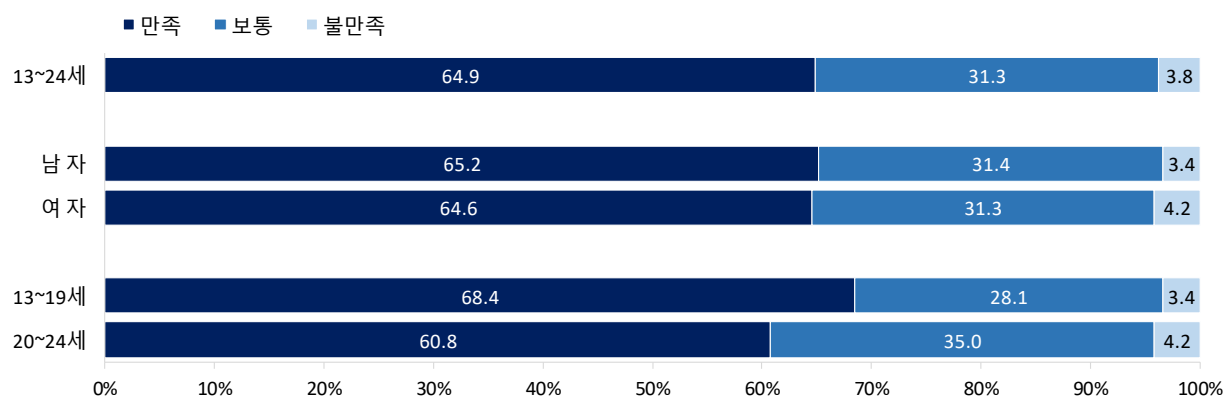
## VIII. 관계

### 32. 인간관계 만족도

2019년 청소년(13~24세) 3명 중 2명은 인간관계에 만족함

- '19년 청소년 3명 중 2명(64.9%)은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만족하고 있으며, 3.8%는 인간관계에 만족하지 못함
- 남자(65.2%)가 여자(64.6%)보다, 13~19세(68.4%)가 20~24세(60.8%)보다 인간관계 만족도가 높으며, 성별보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더 큼

< 인간관계 만족도(2019년)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 인간관계 만족도 >

(단위 : %)

	계	만족	매우	약간	보통	불만족	약간	매우
2017	100.0	65.5	27.8	37.7	29.9	4.6	3.9	0.8
남자	100.0	65.7	29.3	36.5	30.3	4.0	3.0	1.0
여자	100.0	65.3	26.3	39.0	29.4	5.3	4.8	0.5
13~19세	100.0	69.9	33.8	36.1	27.0	3.2	2.5	0.7
20~24세	100.0	60.2	20.4	39.8	33.4	6.4	5.5	0.9
2019	100.0	64.9	26.5	38.4	31.3	3.8	3.2	0.6
남자	100.0	65.2	28.1	37.1	31.4	3.4	2.8	0.6
여자	100.0	64.6	25.0	39.6	31.3	4.2	3.5	0.6
13~19세	100.0	68.4	31.2	37.2	28.1	3.4	2.8	0.7
20~24세	100.0	60.8	21.2	39.6	35.0	4.2	3.6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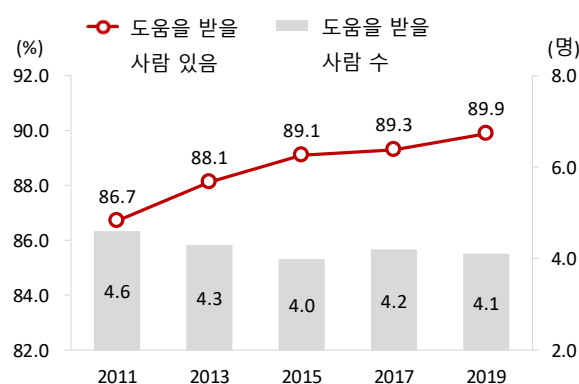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 33. 사회적 관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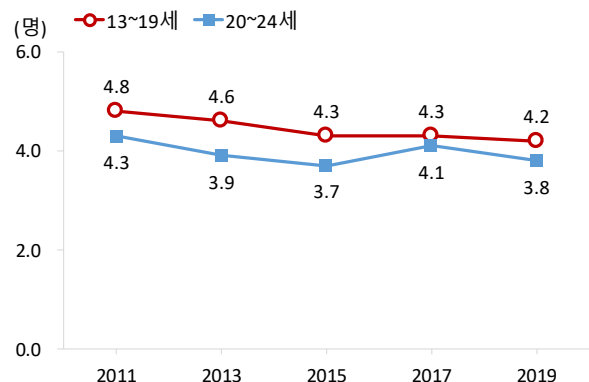
2019년 청소년(13~24세) 10명 중 9명은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음

- '19년 청소년 10명 중 9명(89.9%)은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으며, 그 수는 평균 4.1명임
-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 청소년 비중은 '1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11년 4.6명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17년에 4.2명으로 소폭 상승한 후 '19년에 다시 4.1명으로 감소함
- 여자(92.3%)가 남자(87.5%)보다, 20~24세(90.0%)가 13~19세(89.8%)보다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 비중은 높으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적음

< 사회적 관계망 >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 사회적 관계망 >

(단위 : %, 명)

	계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있음	도움을 받을 사람 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음
2011	100.0	86.7	4.6	13.3
2013	100.0	88.1	4.3	11.9
2015	100.0	89.1	4.0	10.9
2017	100.0	89.3	4.2	10.7
2019	100.0	89.9	4.1	10.1
남자	100.0	87.5	4.1	12.5
여자	100.0	92.3	4.0	7.7
13~19세	100.0	89.8	4.2	10.2
20~24세	100.0	90.0	3.8	10.0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 34. 고민상담

2019년 청소년 고민 상담유형은 정보제공(18.2%), 정신건강(18.1%), 대인관계(16.6%), 학업·진로(12.3%)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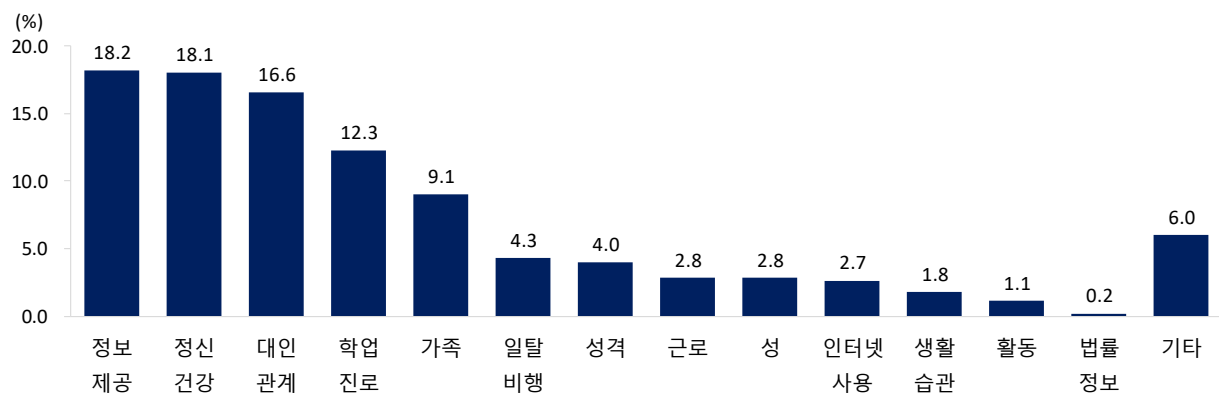
□ '19년 청소년 상담(1388)\* 건수는 90만 2천 건으로 '11년(68만 5천 건)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청소년 고민에 대해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인터넷 채팅으로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 '19년 청소년의 고민 상담유형은 정보제공(18.2%), 정신건강(18.1%), 대인관계(16.6%), 학업·진로(12.3%) 순임

○ 정보제공, 정신건강, 학업·진로, 근로 등과 관련된 상담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대인관계, 가족 등과 관련된 상담은 전년 대비 감소함

< 상담유형별 구성비(2019년) >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1388) 실적」

< 청소년 고민상담 >

(단위 : 천건, %)

	상담 건수	정보 제공	정신 건강	대인 관계	학업 진로	가족	일탈 비행	성격	근로	성	인터넷 사용	생활 습관	활동	법률 정보	기타
2014	751	189	60	135	94	59	38	22	10	30	20	13	7	1	75
2015	772	136	77	140	90	110	33	27	6	32	24	18	11	1	66
2016	833	143	93	146	98	127	38	29	5	29	17	16	11	2	79
2017	863	168	118	157	101	94	39	30	7	30	22	16	17	2	61
2018	878	152	150	157	99	101	41	27	16	31	20	16	12	2	54
2019	902	165	163	150	111	82	39	36	26	26	24	16	10	2	54
구성비	100.0	18.2	18.1	16.6	12.3	9.1	4.3	4.0	2.8	2.8	2.7	1.8	1.1	0.2	6.0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1388) 실적」